

청년생활

1957.3



그림 3·1폭동 (정 현웅 작

청년생활 1957. 3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우리는 왜 증산해야 하며 절약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중첩되는 난관과 곤난을 이겨 가면서 많은 일을 해 놓았으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의 모습은 놀랄만치 변하였다. 모든 분야에서 전쟁의 상처는 기본적으로 가시여졌으며 전쟁전 수준을 훨씬 앞섰다.

우리는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300 여 개소의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확장, 신설함으로써 인민 경제에 필요한 많은 기계들과 자재들을 자기의 힘으로 능히 생산할 수 있게 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 농업 발전에서 큰 전변으로 되는 농업 협동화 운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됨으로써 다수확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지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우리의 원대한 목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하는 위업에 비추어 볼때 그것은 아주 적은 것이다. 우리는 겨우 터전을 닦았을 뿐이다.

우리들은 이 터전우에 사회주의 건설의 주추'돌을 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는 한결같이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계획 수행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명심해야 하는가?

지난 해 12월에 있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방향과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도를 제시하면서 우리들에게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호소하였다. 바로 그렇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 그것은 최대한의 증산이며 절약이다.

그러면 왜 증산해야 하며 절약해야 하는가?

증산과 절약의 필요성

우리 나라의 생산력은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때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고 우리 인민 경제 내부에는 적지 않은 부족점들이 있다.

발전, 연료, 화학 공업은 오늘날 아직도 장성하는 인민 경제의 수요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의 야금 공업도 늘어 가는 기계 공업과 기본 건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농업 경리 부문에서도 알곡 및 공예 작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 경공업과 인민의 장성하는 수요를 만족케 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지난 3개년 계획은 전쟁에 의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였든 탓으로 주로 위대한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적 여러 나라들의 원조에 의하여 수행되였는데 제 1차 5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의 내부 원천에 의거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는 그것이다.

다음으로 당과 정부의 계속되는 배려에 의하여 인민들의 수입은 증대되였다. 그러므로 공업 상품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도 높아졌다. 그런데 우리의 상품 생산은 아직도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생산을 많이 낼 것과 소비를 최대한으로 축소할 것과 국가 축적과 예비를 더 만들어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해야 하며 절약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3개년 계획의 승리적 성과와 많은 예비들이 있으며 특히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경제 정책과 인민들의 창조적 로력과 열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받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열성을 기울인다면 이는 능히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증산과 절약을 위해서는

우선 생산 예비를 찾아서 남김 없이 생산에 동원하며 설비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청년들은 설비를 적극 애호하며 기계의 점검 보수를 질적으로 하여 설비 가동률을 높이며 생산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선진 작업 방법을 도입하여 설비의 효률을 높이는 선구자로 나서야 한다. 한편 청년들은 이제는 《예비가 없다》, 《기계화할 것이 없다》는 등 안일한 현상과 투쟁하면서 적은 예비라도 계속 찾아내며 큰 기계화, 자동화만 볼것이 아니라 적은것, 초보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주로 창의 고안, 작업의 합리화 등을 생산에 도입하여 점차 기계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들은 로동 규률을 강화하며 작업 질서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어데서나 랑비 현상을 반대하고 절약을 잘 조직하며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력과 자재 원료들은 애껴 쓰며 원단위 소비 기준을 최대한으로 낮추어 한 그람의 철, 한 덩어리의 석탄, 한 그람의 기름이라도 애끼는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 기능 수준 제고와 선진적 작업 방법의 도입은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고리로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경험 많은 선진 로동자들과 로련한 선배들로부터 허심하게 배우며 선진 작업 방법과 기술을 생산에 도입함에 항상 모범이 되며 새로운 창의 고안들을 제기함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일제를 반대하여 일어선

3.1 인민 봉기

인민 경제 대학 해방 투쟁 강좌

리 영 애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일제를 반대하여 일어난 3. 1 인민 봉기는 우리 인민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그것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가 비저낸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의 폭발이였다. 오래 동안 조선을 침략하여 오든 일제는 1910년에《합병》의 방법으로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고 말았다.

조선을 강점한후 일제는 조선 인민을 억압하기 위하여 수많은 군대를 끌어 들였으며 22만에 달하는 헌병 및 그의 보조원을 배치하였으며 심지어 소학교 교원들에게 까지《일본도》를 채웠다.

한편 일제는 조선 인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 초보적인 인권까지도 완전히 유린하여 버렸다. 초대 총독이였든 데라우찌는《조선 사람들은 우리 정권을 순종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떠버리였다.

무력 통치 체계를 수립한후 일제는 조선 인민들을 착취하는 것을 일삼았다. 우선 일제는 1912년부터 1918년 가을까지 진행된《토지 조사 사업》을 통하여 880만 정보에 달하는 토지를 농민들로부터 략탈하였다.

일제는 또한《회사령》을 공포하고 조선인 민족 자본의 발전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산업의 90%이상을 독점하고 다른 편으로는 조선의 자연 부원을 마음대로 략탈하였다.

당시 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였다.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농촌에서 류랑 걸식하거나 살'길을 찾아 도시와 국외로 떠나갔다.

도시 로동자들의 생활도 아주 비참하였다. 똑 같은 로동에서도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 로동자의 절반도 못되는 임금을 받았다. 더우기 녀성 로동자들과 소년 로동자들은 남자 성년 로동자들의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았다. 하루 로동 시간은 12~16시간이였고 로동 보호 시설이 없이 질병이 나거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아무런 구호도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쫓겨났다.

일제 무단 통치하의 조선은 그야말로 인민의 감옥이였으며 생지옥이였다. 헐벗고 굶주린 조선 인민들의 사망률은 해마다 늘어 갔다. 1916년도에 16만명이든 조선인 사망자수가 1918년도에는 31만명이나 늘었다. 그러나 자유를 사랑하며 독립을

존중히 여기는 조선 인민들은 이와 같은 감옥이나 생지옥과 같은 생활처지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도처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벌러졌다.

일제 강점을 반대하여 일어난 의병들은 각지에서 일제 통치 기관을 습격하며 일본놈들과 그 주구들을 처단하였다. 농민들은 일제의 토지 략탈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는데 1910~1918년 사이에 농민들의 투쟁 건수는 일제 경찰이 발표한 것만 해도 2만 여 건에 달한다.

로동자들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용감히 전개하였다. 일제 경찰이 발표한 데 의하더라도 1915년에 828명의 로동자들이 일제의 폭압과 대우 개선을 요구하여 9건의 파업을 전개하였는데 1918년에는 50건의 파업에 4,442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조선 인민들의 반일 투쟁을 한없이 고무하였다.
1919년 2월 8일 동경 류학생중 진보적 학생들이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조직하였으며 서울의 학생 청년들도 독립을 주장하던 일부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과의 련계밑에《독립 선언서》를 발표하며 군중적 반일 시위 운동을 조직할 준비를 진행하였다.

1919년 3월 1일 탑동 공원에 청년 학생들이《독립 선언서》를 랑독하고《조선 독립 만세》를 고창하면서 평화적 군중 시위를 단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전 인민적 3.1 인민 봉기가 시작되였다. 오랜 기간 가슴마다에 사무친 원한이 폭발되였다.《조선 독립 만세》,《일본 군대와 일본인은 물러 가라……》의 구호들은 이 강산을 진동시켰으며 도처에서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3월 1일 서울에서만 30만의 애국적 시민들이 파업, 동맹 휴학, 철지 등을 단행하였고 전차를 비롯한 일체 교통 시설의 운행을 정지시켰으며 일제의 통치 질서를 마비시켰다

이에 대하여 일제는 야수적 탄압을 가하였다. 수 많은 우리 나라 애국자들이 체포되였으며 부상당하였으며 학살되였다.

평화적 시위에 대한 일제의 피의 탄압은 인민들을 대중적 폭동에로 나가게 하였다. 인민들은 손에 식칼, 도끼, 곡괭이, 낫, 삽 등을 쥐고 일제의 식민지 략탈 기관들을 습격하고 략탈자들을 처단하였다.

3. 1 인민 봉기에는 악질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제외한 각계 각층 인민들이 참가하였는데 일제의 축소된 부정확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3개월간에 전국 218군 중 211군에서 인민 봉기가 일어났으며 이에는 약 200 여만명이 참가하였다. 일부 지방에서는 1920년까지 투쟁이 계속되였다.

그러나 3. 1 인민 봉기는 광범한 인민 대중이 이에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하였다.

그 원인은 첫째로 인민 봉기를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층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우리 나라의 력사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로동 계급은 아직 청소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투쟁을 로동 계급이 조직 령도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운동은 자연 발생적으로

비조직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일제의 탄압을 쉽게 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봉기한 인민 대중의 철저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인민들은 무장한 일제와의 투쟁에서 무장 준비와 무장 투쟁이 극히 필요하다는 것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세째로 반제 투쟁과 함께 반봉건 투쟁의 구호가 원만히 제기되지 못하였던 사실이다. 즉 토지 문제의 민주주의적 해결을 위한 문제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농민 대중을 보다 광범하고 힘찬 투쟁에로 의식적으로 궐기시킬 수 없게 하였다.

넷째로 우리 인민들이 국제 혁명 력량과의 긴밀한 련계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당시 쏘련은 아직 청소하였고 특히 국내 전쟁의 환경속에 처하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인민들의 독립을 원조할 수 없었든 사실들이다.

이렇게 비록 3.1 인민 봉기는 실패하였으나 조선 민족 해방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며 우리들에게 큰 교훈으로 된다.

3.1 인민 봉기는 인민 자신이 강력히 조직되여 투쟁하여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인민 봉기는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은 불철저하며 무능력하다는 것과 로동 계급만이 민족 해방 운동의 령도자로 될 수 있으며 농민들은 그와의 굳은 동맹하에서만 승리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을 옳게 조직 지도할 혁명적인 당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여 주었다.

끝으로 인민 봉기는 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10월 혁명의 길을 따라야만 해방될 수 있으며 쏘베트 로씨야만이 조선 인민의 독립 운동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였다.

이와 같이 3.1 인민 봉기는 조선 인민의 계급적 각성을 급속히 제고시켰으며 이때로부터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은 점차적으로 조선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 더욱 더 발전된 계단으로 넘어 가게 되였다.

38년전에 일제를 반대하여 일어선 3.1 인민 봉기와 장구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고귀한 민족적 전통은 오늘 우리 인민들의 혈맥 속에 줄기차게 살아 있으며 그것은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가 제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길로 조선 인민을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은 우리의 혁명적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고리로 된다. 전체 청년들은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해 과업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 더욱 더 궐기하자.

3.1 인민 봉기 회상기

진리는 허위를 이긴다

과학원 원장 백 남 운

부르죠아 력사가들은 말하기를 1919년 3.1 인민 봉기는 마치 당시 미국 대통령 윌손이 제창한 민족 자결론의 영향을 받은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 즉 33인의 《지도자》에 의하여 조직되고 발생된 듯이 떠버려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입니다.

일제의 조선 강점을 반대하여 오든 조선 인민의 반제 투쟁의 전통인 력사적인 3.1 인민 봉기는 위대한 로씨야 10월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영향하에 가혹한 일제 탄압을 반대한 전 인민적 봉기였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력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당시 소위 《지도층》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였는가?

그들은 종교인, 지주 또는 소부르죠아 출신의 지식층들로서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이였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친일파로 전락된 최 린, 최 남선, 박 히도, 정 춘수 등과 악질적인 친미 매국노로 전락된 함태영 등도 각각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층의 인물들로 구성된 그 《지도층》들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려 하였습니가?

그들은 당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조선 인민들의 앙양된 반일 기세를 옳게 조직 동원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할 대신에 오직 평화적인 시위의 방법으로, 만세나 웨치고 청원이나 하는 방법으로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립을 주옵소사》하는 따위의 청원서를 일본 정부나 총독부에 제출하기도 하였고 미국 대통령이나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나 당시 일제의 조선 침략을 극력 지지하고 나선 미국의 정치가들이 동정하여 줄리는 만무했습니다. 한가지 실례만 들어도 당시 미국 정부는 조선 인민의 3.1 인민 봉기에 제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이 독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통령 윌손씨의 선언은 일본 제국 령토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일본이 조선을 그 제국의 일부로 한 사실은 확실하므로 오늘 조선을 옛날 상태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제안은 단연 불가능한 일이다.》(조선 독립 소요사론 332페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조선 민족은 《열등 민족》이니 응당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여야 한다고 설유하였습니다.

한편 이때 소위《지도층》들은 투쟁을 극도로 두려워한 나머지 맨 시초에는 서울 탑동 공원에서 독립 선언서를 랑독하기로 하였읍니다. 2월 28일에 이 계획을 변경시키고 다시 서울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이란 조그마한 료리점 구석에 모여 앉아 독립을 선언하는 희극을 놀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레 겁을 먹고 일제 앞에 투항하면서 무저항주의를 표방하고 나섰으며 자신들의 보신책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쓴 한국 독립 혈서(韓國獨立血書)에는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자들인 30여 인은 태화관에서 축배 한잔씩 들면서 전화로써 경무 총감부에 알렸나니라. —헌병과 자동차를 지체없이 보내여 우리 대표들을 실어 가옵소서—》라고 또 그들은 말하기를《…우리가 일으킨 독립 운동은 무저항이 제1의(第一義)의 목적이옵나이다.》 또는 《일본의 소의(小義)함을 책(責)하려 하지 아니 하나이다》라고 일제 앞에 아첨도 하고 반일 항쟁에 궐기한 군중들을 향해서는《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쏠리지 말라》,《일체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시하라》고 권유하면서 인민적 폭동을 두려워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참을수 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소부르죠아《지도층》들의 변절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동자, 농민, 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계속 일제를 반대하여 피의 항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3.1 인민 봉기는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불철저성을 철저히 폭로하였으며 일제와 미제는 다같이 조선 인민의 극악한 원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실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다시 남조선에서 일제를 대신하여 우리 조국을 식민지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부터 38년전에 일제 략탈자들을 반대하여 전 인민적 폭동을 전개한 3.1운동과 장구한 민족해방 운동에서 쌓아 올린 고귀한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 인민은 놈들의 그 어떠한 흉책에라도 그를 용감히 분쇄하면서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가 제시한 길을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고야말 것입니다.

남 조선에서

누가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는가?

작년 8월 초순 어느날, 춘천 농업 대학 2학년생인 장 성순 (21세)은 고향의 아버지에게서 온 한장의 편지를 받았다.

몇달째 밀려온 월납금과 사원 회비 때문에 학교 당국으로 부터 수없이 독촉을 받아온 성순이는 행여나 하고 걸봉을 뜯었다.

그러나 편지를 쥔 성순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성순아! 너의 부탁을 들어 주지 못하는 아버지를 용서하여라! 학비를 석달째 밀렸다니 학교의 독촉인들 오죽 하겠느냐!

어머니는 잠을 잃고 너를 념려하던 끝에 그래도 너 하나만은 대학을 마쳐 주겠다는 욕심으로 〈국방군〉모 륙군 부대 식모로 들어 갔단다. 그러나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볶기워도 너의 학비는 커녕 끼니를 얻어 먹는것 조차 천대스러워 어머니는 며칠전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 낸들 성하다면 어떻게 다른 도리라도 생각하겠다만…. 》

집 사정을 모르는배 아니였으나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짚 오래기를 붙잡듯 얼마나 아버지의 편지를 기다렸든 것이냐!

하숙집으로 돌아온 성순이는 얼음'장처럼 랭랭한 하숙방에 누워 있으려니 그의 눈앞에는 식모 살이에 지쳤을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과 주린 창자를 움켜지고 있을 어린 동생들의 가긍스러운 몰골이 차례 차례로 떠올랐다.

그리고 오래 동안 밀린 학비 때문에 기어이 학교에서 쫓겨 나고야 만 다정한 몇몇 동무들의 얼굴도 눈앞에 뵈였다.

그는 이리 저리 몸을 비비 꼬우며 학비를 해결할 여러가지 생각을 되풀이 하군 했다.

그러나 아무런 좋은 생각도 그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세상은 끝내 나를 버린단 말인가?)

3.1 인민 봉기 회상기

추억 속의 분노

조선작가동맹 부위원장 윤 두 헌

내가 아직 소년이든 때였다.

《읍에서는 독립 만세들을 부른다…》,《서울과 함흥에서도 불렀다는데…》 이런 소문이 련방 들려 왔다. 동리 사람들의 기색은 점점 긴장해졌다.

어린 마음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만 같았다.

아버지가 이틀채 돌아 오지 않았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쑤군거렸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나는 할아버지에게 거듭 물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오냐 인제 너두알게 된다. 왜놈들을 반대해서 조선 사람들이 싸우는 거다》 하셨다.

《동방 례의지국이구, 수천년 동안 독립해서 살아온 조선이 일본의 속국이 된대서야 어디 말이되나?》

사실 나는 그때 할아버지 말의 참뜻을 잘 리해하지 못했었다.

서울을 비롯하여 온 조선 각지에서 조선 사람들이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우리 고을 청년들도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군내 각지에 사람을 띄워 장날에 군 소재지에 모여선 일제히 만세를 부르기로 작정한 것이다. 모다 기'발과 표어를 만들어 두었었다. 이윽고 장날이 되였다. 미리 장만해 두었든 삐라를 장마당에 뿌렸고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드디어 행렬을 이룬 고향 사람들은 행진하면서 하늘 땅을 울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일본 헌병들이 총개들을 다리고 말을 타고 달려 들었다. 놈들은 대구 하늘을 향해 위협

사격을 하면서 해산하라고 호령하는 것이였다. 인민들은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원한과 자주 독립에 대한 조선 인민의 불같은 념원은 헌병놈들의 만행에도 중단되지 않았다. 행렬은 홍수처럼 더 기세 높이 흘렀다. 헌병놈들도 경찰놈들도 당황했다. 놈들은 군중을 향해 마구 발사를 했다. 군중들의 분은 오히려 더 커졌다. 군중들은 군청을 비롯한 일제 기관에 밀려 가서 불을 질렀다. 나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때 헌병놈들에게 많은 사람이 잡혀서 1개월 이상이나 류치장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때 류치장에서 나온 아버지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왜놈들은 우리 애국자들을 야만적으로 학살했다. 그때 왜놈들은 헌병놈들과 그 앞잡이 보조원들을 동원하여 시위자들의 행렬에 발사하는 한편 군중들에게 붉은 물감을 휘뿌려 놓고는 그후 가택 수색을 통하여 붉은 물이 묻은 옷이 있는 집 식솔들은 몽땅 붙잡아다 매질도 하고 학살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것은 내가 더 자란 뒤에 안 일이지만 당시 경기도 수원에서는 왜놈들이 《훈시》가 있다고 하면서 인민들을 기만하여 그곳 교회당에 강제로 강금한 후 불을 질렀다. 간혹 불'길을 헤치고 뛰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놈들은 앞을 다투어 사살하였다. 그리고도 무엇이 부족했던지 놈들은 수원에서만 해도 400호나 되는 인민들의 집을 불태웠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한 서울 십자가 학살은 더욱 참혹하였다. 놈들은 서울 거리에 십자가 형대(十字架刑台)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다 애국자들을 동여 맨후 일본도(日本刀)로 사정 없이 목을 잘랐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애야! 너도 이런 일일랑 잊지말구 어서 커서 이 원쑤를 갚아라!》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겠는가?

조선 인민은 이날을 천추 만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날을 생각할 때 마다 오늘날 일제를 대신하여 우리 조국을 또다시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 대한 화산 같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러나 놈들이제 아무리 발악하여도 3.1의 혈통과 장구한 반일 민족해방 투쟁의 혁명 정신이 맥박치는 조선 인민의 앞길을 가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성순이의 머리에는 불현듯 무서운 생각이 굼틀거리기 시작했다.

《아니다. 그럴수는 없다.》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또다시 그의 머리는 그 생각으로 가득차졌다.

(세상이 그처럼 무정한 이상 학비를 위하여 한번!)

어느듯 날이 밝아 왔다. 새벽이 온것이다. 그는 자리를 걷어 차고 밖으로 뛰여 나왔다.

× ×

며칠후 춘천에서 발행되는《강원 일보》에는 《학비없이 절도하다》라는 표제하에 어느날 새벽 남의 집 창문을 뚫고 물건을 훔치려다 체포되여 춘천 경찰서에 감금된 장 성순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남의 물건이라면 종이 한장 건드린일이 없는 그의 평시의 곧은 마음을 잘 아는 학우들은 저마다 그의 앞일을 걱정하였다.

오늘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은 과중한 학비를 긁어내여 순진한 학생들을 범죄의 구렁에까지 몰아 넣고 있다.

좀



—사람은 영리하게 살아야 해—
이것은 젊은 단조공의 생활 철학,
공장에 나가는건 쌀 배급 타기 위한
방편
일하는 날보다 병원에 가는 날이 더
많다네.

일을 하다가도 가슴을 움켜 쥐고
—내게는 병이 있어서 가슴알이가…
직장장 앞에서 얼굴을 찡그려 가며
병원에 간다는 외출증을 받아 쥔 그,



가슴을 움켜 쥐고, 허리를 굽으리고,
공장 정문을 나가는 모양 중병 환자
같네만
누가 알리, 그가 움켜 쥔 품속에
생산에 귀중한 철편들이 들어 있음을

집에다 대장' 간을 차려 놓고
공장에서 훔쳐 내온 철편으로
호미와 낫을 만들어, 보람차야 할
청춘의 나날을
한초가 바쁜 건설의 날들을 음주
방탕하는 그,

공장 정문만 나서면 딴 사람,
굽으렸던 허리를 펴고
걸음 발도 잽싸게 집으로 달리며
—사람은 이렇게 약아야만 하느니—



그러나 그는 가장 미련한 사람,
사회주의 새 봄을 맞이하려고
가지마다 푸르러 가는
우리들의 건설을 쏠아 먹는 좀,

그는 알지 못한다네.
5개년 계획을 총화하는 날,
모든 청년들이 로력의 열매를
자랑하는 날,
가슴을 치며 통곡할 날이
있다는 것을—

1957. 2. 10

참된 생활의 길을 따라서





로력이 영예로운 우리의 생활은 한없이 즐겁고 아름답다. 날과 달이 바뀌움에 따라 생활의 즐거움과 생활의 아름다움은 더욱 더 우리들 청춘의 가슴에 크나 큰 희망을 안겨 준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활 한 구석에서 우리 시대 청춘의 영예를 스스로 짓밟는, 우리 시대 청춘의 희망을 스스로 물리치는 그런 동무들을 만난다. 이는 결코 그 한사람만의 불행일 수 없다. 우리는 그의 생활도 즐겁게 해 주어야 하며 그의 가슴에도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하며 진실로 우리는 그가 가야 할 길을 참된 벗으로써 도와 주어야 한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 동무들!

편집부는 새해 《청년 생활》 첫호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은?》이란 지상 토론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 생활》 1 호가 배포되어 얼마 아니 되는 사이에 편집부에는 벌써 독자들의 애정어린, 그러면서도 아주 신랄한 토론 원고들이 무려 백 여 통이나 들어 왔다. 그리고 또 계속 들어오고 있다. 편집부는 그 중에서 먼저 3건만을 본호에 게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토론에 많은 독자 동무들이 참가해 주실 것을 바란다.

편 집 부

지 상 토 론

참된 로동만이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

나는 경훈 동무가 농사 일을 천하게 생각하는 데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낡은 사상은 농촌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를 천대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농업 협동 조합 농민들을 천대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문득 경훈 동무의 행동을 눈앞에 그려 보면서 과거 우리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을 멸시하며 모욕하며 착취하던 지주놈들을 생각케 된다. 그 놈들은 농사 일을 천하게 생각하면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었다. 그 놈들은 놀고 먹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였다. 그 옛날 착취자들에게 억눌리우면서 피 땀을 흘릴 때의 노예 로동은 물론 고역이였으며 거기에서는 생활의 기쁨과 보람이란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들의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훈 동무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을 꿈을 꾸고 있다.

경훈 동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청년들이 모두 동무와 같이 일하기 싫어 한다면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은 누가 하며 우선 자신들이 먹고 입는 것은 어데서 생깁니까? 로력이 없는 곳에 그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된 로동 속에서만이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경훈 동무! 동무는 이 참된 생활의 길을 모르고 있어요. 나는 동무에 대한 순애 동무의 간절한 충고를 눈물을 먹음으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경훈 동무도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심각히 반성할 것입니다. 반드시 순애 동무와 힘있게 손잡고 우리 나라 농촌의 젊은 사회주의 건설자로서 새 행복의 주인이 되십시요.

평남 순천군

평리 금천 농업 협동 조합

김 옥 순

로력과 사랑을 하나의 정열로써!

나는 순애 동무와 영옥 동무의 서로 다른, 사랑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하렵니다.

사랑이란, 그 사랑을 서로 정열적으로 나누는 두 사람 사이의 고상한 감정과 사상, 높은 생활 리념의 공통성과 지향의 공통성에서 맺어지는 친절한 동지적 관계가 아닐까요?

나는 순애 동무의 사랑에 대한 리해가 바로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들 주위에는 사랑이란 생활과 떨어진, 그리고 오직 그것은 달콤한 것으로만 여기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벅찬 현실과는 떨어져서 로력과 투쟁을 기피하면서 향락만을 꿈꿉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낡은 사랑 잔재의 표현입니다. 나는 영옥 동무의 사랑에 대한 리해가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참된 사랑을 한다면 보다 고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져 애씁니다. 혹 자기의 잘못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적할 때면 그것을 시정하기에 힘쓰며 또한 애인의 약점을 고쳐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조심하며 호상 존경하며 애인의 사업을 도와 줍니다.

순애 동무는 경훈 동무를 동지로서 애인으로서 도와 주었습니다. 물론 순애 동무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가 만약 좀더 경훈 동무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더라면 그는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는 제때에 자기의 잘못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험한 길에까지 들어 서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는 순애 동무의 정열이 좀 더 뜨거웠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초, 고중 졸업생들을 농촌으로 부르는 엄숙한 조국의 부름을 받들고, 농사 일을 싫어하는 애인을 꾸중한 일이며 애인의 견달 행위가 조합원들의 입에 오른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성실히 일할 것을 충고한 사실은 참으로 우리 녀청들의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랑을 다만 순간적인 것으로만, 그리고 오직 달콤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영옥 동무에 대해서는 분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연지나 분이나 화려한 옷차림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옥 동무는 농촌은 《일이 힘 들다》하여 무조건 농촌으로는 시집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어쨌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만을 찾았습니다. 즉 그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로동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리해하지 못하고 오직 안일 속에서, 물질 속에서 허망한 꿈을 찾았습니다. 애인이 국가 물자를 훔쳐온 것임을 뻔연히 알면서도 그를 꾸짖을 대신 오히려 기뻐하는 그, 이 얼마나 증오스럽습니까. 영옥 동무는 《사랑하는 사람》을 도적놈으

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암흑에로의 《안내자》입니다.

영옥 동무는 반드시 순애 동무의 모범을 배워야 하며, 로력 속에서 《행복》과 《사랑》을 찾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황해 남도 송화군 송화읍 24반
읍민청 제2 초급단체
박 영선

지 상 토 론

동지애에 대하여

나는 경훈 동무가 민청 생활을 하던 그의 고향 민청 단체에 의견이 있다. 그들은 청년들 속에서 일을 아주 잘못하였다. 우리는 동지를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히 도와 주어야 한다. 물론 그들은 경훈 동무의 그릇된 로동에 대한 태도를 총회에서 비판하였다. 물론 이것은 옳았다. 그러나 생각이 났을 때만 회의에서 비판하고 그 다음은 내버려둔 것이 옳았는가? 초급 단체 위원회는 청년들 속에 침투되여 그들과 생활을 같이 하며 그들 속에서 조국의 현실적 요구와 구체적으로 결부시켜 그들 속에서 산 교양을 진행했어야 했다. 그의 약점과 그릇된 지향을 제때에 포착하여 그를 인내성 있게 고쳐 주어야 했다.

《청년 생활》 제1호가 제기한 지상 토론 《그가 가야 할 길은?》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다. 나는 민청 일'군으로서 나의 사업에서와 우리 군내 청년들 속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를 도리켜 보게 된다.

우리 군 읍리 신흥 농업협동조합 민청 단체의 정 창철 동무는 조합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며 곧잘 쌀을 팔아선 술을 마시곤 했다. 그는 술을 진탕 마실 뿐만 아니라 조합의 여러 처녀를 롱낙했었다.

이것은 정 창철 동무 한 개인과 그들의 부부간의 생활에 관한 일만으로는 될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가정과 우리의 단란한 집단 생활에 관계되는 일이였다. 우리 민청원들과 민청 일'군들은 동지로서 그의 행복과 장래를 위하여 그를 도와 주어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그리하여 조합 민청 단체와 그곳 민청원들은 그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였는가를 연구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충고하였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다. 이의 대책으로 그들은 제때에 민청 총회를 열고 그에게 의견과 조언과 비판을 주었다. 그때 그는 자기 비판을 했으며 자기의 그릇된 점을 고칠 것을 총회 앞에서 말하였다. 그곳 민청원들은 그것으로써 그의 결함이 훌륭히 시정되리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결함은 다소 시정되였다. 그런데 이것은 며칠이 못 갔다. 이곳 민청 단체와 민청원들은 사람의 결함이 하루 이틀에 시정되는것처럼 잘 못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을 포착하고 우리 군 민청 단체는 조합 민청 단체에 방조를 주었으며 동지를 교양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꾸준하게 끝까지, 그리고 겸손하게 타이르고 설복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그 후 민청 단체와 민청원들은 이러한 방향에서 그와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마침내 그들의 성의있는 노력은 정 창철 동무로 하여금 조합 일을 성실하게 했으며 안해 김 순녀 동무의 참된 남편으로 되게 했다.

평북 곽산군 민청 위원회
부위원장 정 희덕

사회발전 이야기 (3)




(6)생산 도구들이 발전되니까 의례 로동 방법도 발전하여 인류는 이전 보다 힘을 적게 들이고도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되였다. 그 한 례로 산에서 살고 있는 말을 사냥한 것에서 들 수 있다.

이미 활을 발견하긴 하였으나 인류는 그것으로는 많은 말을 단꺼번에 사냥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낭떠러지를 골라 잡고 있다가 말 무리들이 달려 들면 삼면으로 포위하여 말들을 낭떠러지 쪽으로 쫓았다. 낭떠러지까지 이른 말들은 그만 피하지 못하고 무리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7)생산 도구와 로동 방법이 발전하여 감에따라 인류의 로동에는 분업이 생겼다. 례를 들면 젊고 힘이 많은 남자들은 짐승 사냥과 고기 잡이를 하였고







녀자들은 식물을 채집하고 어린애를 보는 일들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늙은 이들은 도구를 만드는 일들을 맡는것 등등으로 분업했다. 결과 생산력은 이전 보다 훨씬 더 발전하여 갔다.

(8)분업이 발생하고 생산력이 높아지고 여유가 생기자 원시인들은 이전처럼 먹을것을 찾아 떠 돌아 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분공 합작하여 함께 로동하면서 떠는 갈라지지 않게 되였다.



(9)일정한 곳에 자리를 정하고 살게 되자 인류는 질그릇을 발명하였다. 질 그릇은 처음에 고기 굽는 광주리 (나무 가지로 만든것)우에다 흙을 발라서 불에 구워낸 것이였다. 이 흙은 불에 타니 굳어져서 물을 담아도 새지 않았다. 후에 이르러서는 전혀 광주리를 리용하지 않고 그냥 흙만 가지고 질그릇을 만들어 썼다.

(10)인류는 짐승을 길들여 가축을 기르는 법도 알게 되였다.

사람들이 가축을 기르게 된



것은 사냥 도구와 사냥 방법이 발전된 결과 사람들이 자주 단번에는 먹어 버릴 수 없으리만치 많은 짐승을 사냥한데 있다.

사람들은 먹다 남은 것을 보관하였으며 짐승을 사로잡는 경우에는 그것을 산채로 보관하였다가 먹군 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이 쌓이는 동안에 그들은 짐승들의 버릇을 알게 되여 비교적 성질이 온순한 종류를 골라 길 들여서 가축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처음에 개를 기르게 되였고 후에는 양, 소, 말 등을 기르게 되였다.

가축을 기르는 도중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사냥하는 것보다 퍽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즉 사냥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굶주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가축을 기른다면 언제나 필요할 때에 고기나 젖을 먹을 수 있고 가죽이나 털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것이 퍽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가축만을 길러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였고 이에 따라 가축을 기르는 일이 점차 발전하여 목축업으로 되였다. 따라서 목축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씨족이 나타나게 되였다.

랭상모는 벼 다수확의 고리

요즘 재령 동화 농업 협동 조합 민청원들은 랭상모판 준비에 한창 바쁘다. 조합에서는 작년도에 륙상모 보다 정당 1톤의 쌀을 더 거둔 랭상모의 시험적 성과에 기초하여 금년에는 논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230반보에 랭상모를 옮기기로 했다.

지난 해에 조합에서는 정당 7톤의 알곡 증산을 예견하고 벼 종자로서 가장 좋다는《수원 1호》로 조합 논의 5%에 해당하는 2정보에 랭상모를 옮겼었다. 이때 늙은 이들은

《그저 물모가 실수 없습네. 벼 농사로 잔뼈가 굵어졌지만 자고루 벼란 놈은 물 먹고 살기 마련이거든》

하고 알지 못하는 랭상모의 부침을 못마땅해 하였다.

사실 랭상모를 옮기기 까지에는 곤난도 많았다. 간혹 어떤 벼 종자는 소독이 잘 못되여 싹이 나오자 황재병에 걸린 것도 있었으며 모판의 상내 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환기 조절을 잘 못하여 벼'모를 몽땅 죽일번한 일도 있었다. 때로는 발아 전에 관수를 잘 하지 못하여 싹이 나오다 몽땅 말라 버릴번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꾸준한 노력은 랭상모의 기술 관리법에 성공하여 랭상모에서 정당 평균 1톤의 쌀을 더 거두었다.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합에서는 금년에는 정당 2톤 500키로그람의 증산을 예견하고 전체 논 570반보중 40%에 해당하는 면적에 랭상모를 옮길 계획을 세웠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작년에 랭상모 관리법에서 일정한 경험은 얻었지만 금년에 수십배로 확대된 랭상모의 자재 준비는 전혀 새로 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갖출려면 실로 막대한 자재와 많은 로력이 필요했다.

우선 논 면적의 40%인 230반보의 논에 랭상모를 옮기기 위해서는 800여 평의 랭상 모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만들려면 거의 1, 600 여 개의 문짝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다.

또 그 밖에 방풍장용 수수'대, 방풍목, 나래와 방풍장에 쓸 새끼들과 기름, 물졸레, 물통 등도 늦어서 2월 말일까지는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 사실 이것은 조합의 력량에 비추어 방대한 일이였다. 더군다나 평야 지대인 이 곳에는 나무가 없는 것만큼 목재 해결이 곤난하였다.

조합에서는 이것을 벼'짚과 바꾸어 오는 방도를 취했으며 모자라는 것은 벌목해 오도록 국가에서 보장받았다. 또 일은 그뿐만이 아니였다. 랭상모는 비료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좋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정당에 20톤의 비료를 시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기실 이것도 아직 20%의 정도 밖에 장만하지 못하였다. 청년들은 우선 조합의 계획을 받들고 민청 총회를 열었다. 회의에서 청년들은 분량이 많은 일인 목재 구입 및 벌목 작업과 비료를 장만하는 일들은 자기들이 도맡아 3월 20일 전으로 완수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실천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한편 도 장만하였다.

이들은 지금 랭상모 관리법에 대한 기술 학습을 하는 사업을 조직하며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본사 기자 조 정직

대지에 행복을 가꾸는 청년들

파벽토, 너탄 등 6톤에 달하는 비료

개간지에 울리는 청춘의 노래

—평남 개천군 봉화 농업 협동 조합에서—

피약'골 개답 공사장은 벅작 들끓었다. 삽과 곡괭이들이 번갈아 해'별에 번쩍거리고 어기영 치기영 목고소리는 온 들판에 퍼진다. 삼봉 농업 협동 조합 민청원들의 호소에 호응하여 이곳 조합원들은 지금 60정보에 달하는 개답 공사를 영농기 전으로 끝내기 위하여 한결같이 동원된 것이다.

꽃나이 처녀들이 흙짐을 지고 달려 가고 달아온다. 그 누구의 얼굴에도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새 나라 살림을 꾸리는 사회주의 건설자로서의 높은 긍지와 기쁨이 어려 있다.

조합이 조직되면서부터 이곳 조합 청년들의 로동에 대한 태도는 판판 달라졌다. 작년도만 해도 이 조합에서는 청년들이 솔선하여 12정보의 밭을 논으로 풀었다. 그도 그럴것이 옛적과는 달라서 지금은 일하면 일한만큼 수입도 많아졌고 생활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작년도만 해도 이 조합에서는 논에서 벼 정당 4톤 300키로의 수확을 거두었고 최고 7톤의 기록을 돌파했다. 그 결과 조합원들에게는 매 로력 공수당 6키로의 정곡과 37원씩 되는 현금이 차례졌다. 민청원 차 봉실 동무의 집에서도 920로력 공수에 100 여 가마니의 정곡과 2만 4천 여 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것이면 차 봉실 동무네 집에서는 1년 계량을 하고도 한 30 가마니 남을 것이라 한다.

일제때 차 봉실 동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마을 지주 최 봉준의 안팎 머슴으로 있었으며 그의 나 어린 오빠 봉현이는 그 집 나무'군 아이로 있었다.

그때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봉실이가 엄마의 등에 업혀서 지주네 집에간 일이 있는데 그 때 지주의 손자가 과자를 먹고 있었다. 아직 철부지한 봉실이는 그것을 탐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필경은 서로 뺏을려고 앙앙 울면서 싸움질이 버러졌다. 그 때 그것을 본 린색한 지주는

《이년이 팔자에 없는 과잘 다 먹으려 드는구나》고 소리쳤다.

이 일을 안 봉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봉실이를 끌안드니만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자기의 어린것에게 과자 한개 못쥐여 주는 자기의 기구한 팔자가 한스러웠기 때문이다. 봉실 동무는 지금도 어린 때의 그 일이 잊혀지지 안노라 하였다.

그런데 그 지주란 놈은 지난 후퇴시기 미군들과 함께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 그놈은 농민들을 향하여《땅

을 되려 내라. 5년간 소작료를 몽땅 내라》하고 호통을 쳤다. 특히 마을의 패거리 지주 심 만기의 아들 심 왈선이란 놈은 마을에 나타나 치안대장 노릇을 하면서 김 락희 동무의 아버지서껀 마을의 열성 농민들을 마을 앞 허공 다리 목에서 학살하였었다.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농민들은 자기들의 피땀으로 쟁취한 귀중한 혁명의 전취물인 땅을 고수하는 길은 오직 증산하며 협동 조합을 공고 발전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래서 협동 조합이 조직된 후 이 마을에서는 사실상 개인농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많은 변혁들이 생겼다. 조합이 조직된후 불과 3년 동안에 식량이 부족하던 빈농을 120 여호나 퇴치했고 기와 집도 많이 지었다.

가축 두수도 엄청나게 늘어 지금은 소 115두, 도야지 173두, 닭 650 마리, 오리 백마리, 염소 등 가축 없는 집이란 하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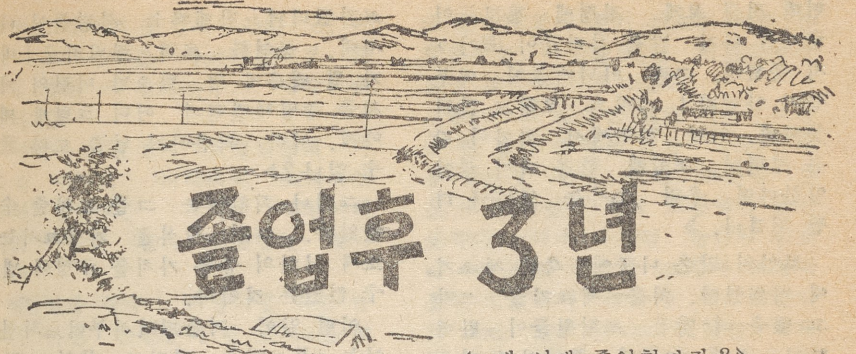
여기 피약'골 개답 공사만 해도 그렇다. 피약'골이란 이름은 본시 이 골안은 땅이 습하여 피난 밖에 못심는다 하여 생긴 것이다. 물론 농민 들은 여러해를 두고 개답 공사를 궁리해 왔으나 오직 조합이 조직된 후에야 농민들의 오랜 숙망은 실천을 보게 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벌써 작년도에 12정보의 논을 얻었고 금년에 다시 60 정보의 논을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년 가을엔 또 20 여 톤의 증수를 보게 될 것이다. 더우기 옛적 같으면 이때면 영농 준비는 고사하고 아직 세월이 멀었다고 팔짱을 끼고 앉아 있을 때다. 그러나 이곳 청년들은 벌써 빈틈없는 영농 준비를 해 놓았다.

토질에 알맞는 종자들도 골라 놓았으며 전체 논 면적의 50% 이상에 랭상모를 할 차비도 해 놓았다. 자급 비료들도 약 4,000톤 준비하였다.

피약'골에서 울리는 젊은이들의 창조의 노래! 그것은 곧 사회주의의 봄 언덕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나라 농촌의 장엄한 행진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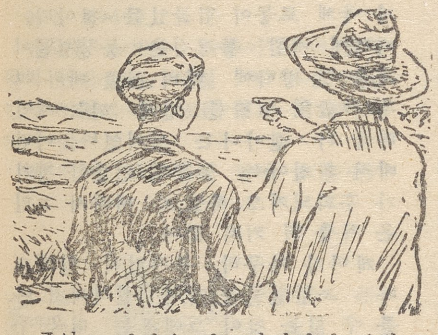
본사 기자 한 희만





졸업후 3년

농촌으로!



졸업도 가까운 어느날이였다. 하학후 선참 교문을 나선 안 희찬은 논'두렁길로 해서 집으로 돌아 오고 있었다. 푸른 벼'모들이 굼실굼실 춤추고 있는 벌을 바라다 보면서 이것 저것 갈피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든 희찬이는

《여보게 희찬이! 좀 앉았다 가게!》하는 바람에 걸음을 멈추었다. 논'둑의 서늘한 백양 나무 그늘 밑에서 혼자 쉬고 있든 조합의 김 로인이 머리를 이쪽으로 돌려 소리치는 것이다. 《어서 오게!》

로인은 긴 담배'대를 입에서 떼고나자 선량한 웃음을 지으면서 묻는 것이였다.

《그래 이제 졸업한다지?》

《예……. 》

《허 그것참! 님자 백일날에 걸음마를 시켜보든 것도 어제 같더니 벌써 중학을 나와! 그래 님잔 졸업후 어디로 가게 했나?》

《대학엘 가야죠.》희찬이는 좀 민망스러운듯 우정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했다.

《아무렴, 님자야 어려서부터 공부엔 일등이 였으니까!… (로인의 얼굴에선 웃음이 살아졌다) 그러나 꼭 대학에 가야만 맛이나? 님자의 그 훌륭한 재능을 고향땅에 바칠 생각은 없나?》

《………. 》

희찬이는 말문이 막혔다. 농촌에 진출하면 배움의 길이 중단되고 따라서 발전의 길이 꺾이우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든 것이다. 이윽하여 로인은 왜정때 일로부터 말머리를 떼기 시작하였다.

《왜정때 우리 농사군들이 지주놈들의 착취 밑에 헐벗고 굶주렸다는건 님자도 알테지.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모두가 제땅들을 합해 조합을 묶고 알뜰살뜰히 농사를 짓고 있지 않나. 우린 해마다 살림이 피여가고 있네. 그

런데 저걸 보게. 전쟁때 장정들이 군대에 나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네. 그래 아낙네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로력도 많지 못하네. 이런 형편에서 희찬이 같은 청년이 조합에 한목 끼여 들어 일한다면 우리 농사는 얼마나 더 잘 되겠나.》

로인의 말은 나중에 축력 제초기에 미치였다. 처음 제초가를 쓰자고 했을 때 많은 조합원들이 반대했다. 소가 논판에 들어서서 김을 매야하니 모가 견데날 것인가 하는 짐작이였다. 그러나 작년에 초중을 졸업하고 조합에 든 성춘이가 먼즘 그것을 쓰기 시작한 후로 축력 제초기는 광범히 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손으로 김을 매느니 보다 몇배 더한 능력을 내게 되였다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희찬의 머리엔 김 로인이 하던 야로비쨔찌아요, 괭상모요 하는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지금의 농촌은 어제'날과 얼마나 다른가? 김 로인 같은 륙순을 넘은 분도 새 지식을 배우며 그것을 농사에 다하려 하고 있는데……)

희찬이는 이런 가슴의 충동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56년 7월, 룡천 고중을 졸업한 안 희찬은 북현 농업 협동 조합에 들게 되였든 것이다.

그의 고민

희찬이가 조합에 온 후 많은 조합원들이 그에게 큰 희망을 걸었다. 하루는 고섭이가 그를 찾아 왔다. 그리고

《참 답답하네. 우리 조합 비료 사정이 넉넉치 못해서 내가 니탄을 쓰자했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서네. 공연한 로력 랑비라구! 내가 뭘 배운게 더 있으면 니탄의 가치를 증명해낼텐데 어디 그렇게 돼야지. 어디 희찬이가 날좀 도와줄 수 없나?》

그러나 희찬이는 그를 도와줄 수 없었다. 그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도제 니탄의 유용 가치를 구명해 낼 수 없었든 것이다.

이런 일이 거듭되면서부터 희찬이는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고 더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가야 하겠다는 꿈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육체 로동이 힘들었든 것이다. 대학에 대한 동경심은 동창생들이 겨울철 방학에 내려 왔을 때와 그 후 그들의 편지를 받게 되는 때면 더욱 더 살아나는 것이였다. 이런데서 희찬이는 농촌에 진출한 자기가 후회되기도 하였고 따라서 고민은 차츰 더 커져 갔다.

게다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다른 조합원들을 작업 실적에서 따를 수 없는 것이 그에게는 더욱 두통'거리였다.

모내기 때였다. 희찬이에게는 첫 모내기였다. 학교다닐 때 어머니를 도와 주는 삼아 모를 내든 그런 솜씨로서는 도제 다른 조합원들을 따를 수 없었다. 희찬이는 하루에 200평씩 밖에 못했다. 그런데 가장 애어린 처녀들도 400평을 쉽게 한 것이다. 희찬이 때문에 그의 작업반은 모내기 경쟁에서 기중 꼬리를 하였다. 관리 위원장은 총화 회의에서 희찬이를 꾸짖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와 작업 반장은 그를 다르게 대하였다.

《그것 봐라! 내가 뭐라든! 로력공수도 제대로 못벌께 무슨 큰 마음 먹고 농사를 차비했는지? 즛즛! 올엔 다 걷어치우고 대학에나 가라!》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글썽해 가지고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치는 날이 많았다. 그리고 희찬이네 작업 반장은 관리 위원장을 찾아 가서

《위원장 동무! 희찬이를 바꿔 주오! 다른 반원들이 밤 낮 그를 도와 줘야 하니 이거 어디 해먹겠소! 그렇지 않으면 날 딴데로 돌려 주오!》

하는 것이다.

만사를 포기한 희찬이는 이틀째 일에 안나갔다. 이런 때 마침 조합 민청 위원장이 짬을 내서 희찬이를 찾아 왔다.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오늘 밤'중으로 병원에 같이 가는게 어때!》



희찬이는 이날밤 민청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나도 그 심정을 알만 하오! 그러나 내 생각 같애선 희찬 동무가 너무 약한것 같애. 어디 희찬이 같은 지식 청년이 육체 로동에서 남만 못하다구 해서 나무렴 받아야 되겠나. 새 영농 기술의 도입과 조합의 문화 건설에서 놀아야 할 역할이 더 크단 말이야. 그 역할을 이제 다 하기 위해선 고통을 꾹 참고 농민들 한테서 계속 꾸준히 배우는게 필요해! 다 때가 있는 법이야!》

희찬이는 민청 위원장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면서부터 적지 않은 힘을 얻었다. 새 영농 지식이란 대학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조 일석에 되는 것도 아니다. 우선 농민들 한테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이런 점에서 얼마나 힘을 들였던가? 없다. 학창 시절에 배운 그 지식 그것만을 가지고 큰 지식인체 여겼으니 조합을 위해 아무것도 못한 것은 응당하지 않는가? 나의 갈 길은 대학이 아니라 농촌에 심장의 뿌리를 더욱 굳게 박는 것이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조합엔 하나, 둘, 초, 고중 졸업생들이 늘어 갔다. 조합 관리 위원회는 일부 완고한 조합원들이 지식 청년들을 못 미더워 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리고 조합 민청은 초, 고중 졸업생들을 하나의 영농 기술 크루쇼크에 망라하여 선진 영농법과 다수확 경험들을 열심히 배우게 하였다.

희찬이는 크루쇼크에 들어가 훌륭한 농업 지식을 배웠다. 크루쇼크를

지도하는 분들은 군에 와 있는 농산 기사, 기수들이여서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결코 학창 시절만 못하지 않았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회찬이는 자기도 농산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굳게 믿게 되였다.

가을에 들어 서자 조합 관리 위원회는 니탄을 연구하라는 과업을 크루쇼크에 주었다 . 크루쇼크원들의 집체적 지혜로 곤난한 비료 사정을 해결할려고 하였다. 일찍부터 니탄에 뜻을 두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고민으로 하여 일을 추진 못시키고 있던 회찬이는 이번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솟았다. 회찬이, 원숙이, 경문이들은 수십년간의 농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 로인을 맨 먼즘 찾았다. 로인은 자기가 소작살이 하던 왜정때의 쓰라린 일들을 다시금 회상시켰다. 그리고 농민이 땅의 주인이 된 오늘날, 더우기 새 교육을 받은 너희들이 못할 일이 뭐이냐. 하면서 고무해 주었으며 자기가 그들을 도와 주겠다 했다. 회찬이네들은 김 로인에게서 좋은 의견을 들었다. 그는 일정한 리론적 근거는 가지고 있지 못했으나 왜정때 비료가 아주 없을 때 니탄을 석회 질소와 섞어서 드문드문 써 본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든 것이 해방 후엔 화학 비료가 태산처럼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그런 사용법을 영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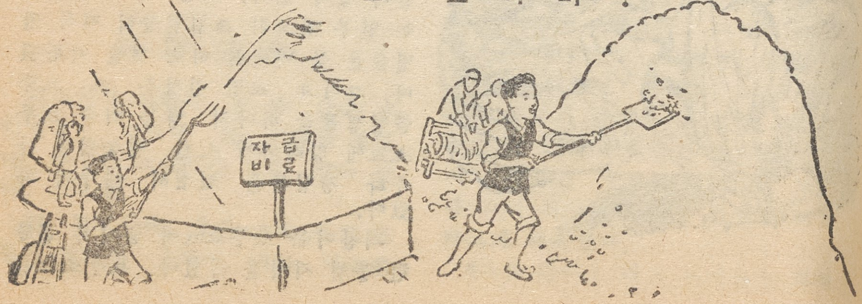
회찬이네들은 오랜 노력 끝에 니탄을 석회 질소에 섞어서 비료를 만들면 한발의 피해가 비교적 적은 옥수수 밭과 논들에 뿌려 평년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아주 고귀한 결론을 얻었다. 그리하여 조합에선 80톤의 니탄을 캐서 비료를 만들었으며 1956년의 풍년을 맞이 했던 것이다.

회찬이가 졸업후 3년 동안 자기의 벗들과 함께 조합을 위해 한 일은 많다. 고원 지대의 감자를 평원 지대에 심어서 거의 두배의 수확을 얻은 일, 호박의 순을 잘라 없애 가지고 더 굵은 열매를 얻게 한 일…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무릇 조합원들이 그를 보배로이 여겨 찬사를 보낼 때면 회찬이는 노상 겸허히 답례한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할 뿐입니다!》그리고 그는 얼마전에 평남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의 연설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면서 새 영농 기술을 더욱 더 열심히 배울 것을 다짐한다.

본사 기자 송 정

비 료 는 쌀 이 다 !



민청은 어떤 단체입니까

리 홍 종

우리 함께 민청 규약 제 1장의 첫 부분을 읽어 봅시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은 우리 나라의 광범한 청년들을 자원성에 기초하여 망라한 대중적—민주주의적 조직이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은 직업과 신앙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각계 각층 청년들로써 조직된다》.

우리는 이 제 1조항에서 민청의 성격을 인차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민청은 우리 나라의 광범한 각계 각층 청년들로써 조직된 대중적—민주주의적 단체입니다. 그러면 민청을 왜 대중적—민주주의적 청년 단체라고 합니가?

민청을 **대중적** 청년 단체라함은 민청은 정치 사상적으로 준비된 일정한 계층의 청년들 뿐만 아니라 로동 청년, 농민 청년을 비롯하여 학생 청년, 수공업 청년, 상기업 청년, 종교 청년 등 그의 직업과 신앙, 정당 관계, 가정 환경을 가리지 않고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망라될 수 있는 조직 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민청은 이러한 대중적 청년 단체로 조직되였습니가?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8.15 해방 후 조선 인민 앞에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앞잡이인 리 승만 역도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민주주의적으로 통일 독립하여야 할 혁명 임무가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혁명 임무를 수행하자면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한 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 력량이 단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로동당은 자기의 창건 첫날부터 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 력량을 단결시키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정책을 내세우고 그의 실천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우리 나라 각지에는 공청을 비롯하여 수 많은 청년 단체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조직되였습니다. 이런 사정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애국적 력량을 분산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김 일성 원수께서는 통일 전선 정책을 내놓으면서 공청을 비롯한 여러 청년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에 각계 각층 청년들을 단결시킬 것을 교시하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의

이 교시를 받들고 1946년 1월 17일에 민청이 창건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형편과 혁명 임무를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건실치 못한 분자들은 이러 저러한 구실밑에 민청을 조직하는 것을 반대하여 나섰으며 민청이 조직된 후에는 공청의 간판을 민청의 간판으로 바꾸어 놓고 《공청식》으로 사업하자는 것을 고집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청을 그냥 둠으로써 광범한 각계 각층 청년들의 단결을 방해하는 옳지 않은 주장을 고집하였습니다. 한편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미제의 고용 간첩이였든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이 민청 조직을 반대하고 청년들을 분렬시키는 범죄적 행동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자들의 책동은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제때에 타격을 받고 실패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때에 건실치 못한 분자들의 주장대로 민청을 조직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였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민청이 오늘과 같이 광범한 각계 각층 청년들을 단결시킨 전투적 대오로 되지 못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광범한 청년들의 애국적 력량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중적 청년 단체로서의 민청을 조직할 데 대한 김 일성 원수의 교시가 가장 옳았음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로선은 오늘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앞으로 조국이 통일된 후에 있어서도 계속 정당한 로선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김 일성 원수는 《…민청 단체는 자기 대렬을 부단히 장성시키며 대중적 청년 단체로서의 조직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민청 제 4차 대회는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의 결정을 받들고 앞으로도 대중적 청년 단체로서의 민청의 조직 원칙을 준수하여 각계 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의 단결로써 민청 대렬을 더욱 확대 강화할 과업을 결정하였으며 그의 견결한 실천을 각급 민청 단체에게 책임지웠습니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민청의 대중적 성격을 똑바로 인식하고 각계 각층 청년들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민청을 왜 민주주의적 청년 단체라고 하는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청의 목적과 과업이 민주주적일 뿐만 아니라 민청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또 그 원칙 밑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민청의 목적과 과업은 청년들을 사회주의 정신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는데 있습니다.

민청은 공화국 북반부에 세워진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며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반인민적 파쑈 통치를 반대하고 남반부 청년 학생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배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합니다. 민청은 또한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위대한 쏘련, 중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청년들과 단결하여 투쟁합니다.

민청은 일체 부르죠아적 반동 사상과 파쑈 사상이 청년들에게 침습되지 않도록 투쟁하며 그들을 가장 선진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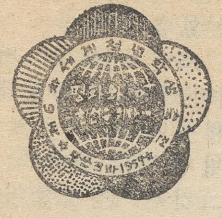
이와 같이 민청의 목적과 과업 및 모든 활동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민청의 조직과 모든 사업도 민주주의적 원칙과 방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우선 민청에의 가맹을 말한다면, 그것은 청년들의 자유 의사 즉 자원성에 의하여 진행되며 그들에게는 민주주의적 권리가 부여되여 있습니다. 또한 민청의 각급 지도 기관은 하부로부터 상부에 이르기까지 민청원들의 총회, 대표 대회, 대회에서 선거되며 선거 받은 지도 기관은 자기를 선거한 민청 단체와 민청원들 앞에 자기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결 보고합니다.

민청 지방 단체들은 창발성을 발휘하여 자기의 지역적 문제를 자기 지방 실정에 알맞게 자립적으로 토의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청 각급 지도 기관은 집체적 지도 원칙에 의하여 자기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상 설명한 바에 의하여 우리는 민청의 조직과 활동이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기다린다

600 여 만개의 기념장

축전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쏘련 재정성 국가 화폐 발행 관리국 산하 일부 공장에서는 지금 600 여 만개의 축전 기념장을 만들기에 한창이다. 그중 한가지 종류는 축전 휘장인데 그 모양은 꽃처럼 되여 있다. 이 휘장의 구조를 소개한다면 이러하다. 즉 중앙에는 람색 지구가 있고 그 표면에는 《평화와 친선을 위하여》라는 금색 글'자가 새쳐져 있으며 지구의 바깥 테두리에는 《제 6차 세계 청년 및 학생 축전 모스크바, 1957년》이라고 씌여져 있다. 그리고 테두리 주위에는 적색, 갈색 귤색, 록색 및 황색의 5색 꽃'잎이 나란이 달려 있다. 이 5색 꽃'잎은 세계 5대주를 상징한 것이다. 축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가슴 마다에 이 휘장을 달게 될 것이다.

90개의 전용 렬차

쏘련에서 열리는 이번 축전에는 세계 각국에서 3만명의 청년과 쏘련 각 가맹 공화국 변강 및 주에서 약 2만 5천명의 청년이 참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순편하게 모스크바로 도착하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쏘련 려객 운수 관리국은 90개의 객차 (전체가 금속 차'간으로된)를 준비하고 있다.

이 렬차 내에서는 청년들로써 조직되는 가장 훌륭한 승무원 그루빠가 복무하게 된다. 이들은 외국 손님을 잘 접대하기 위해 2주일간 강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전용 렬차들은 쏘련 국경 지대에 있는 게르치, 브레스트, 오데싸, 오트뽀르, 레닌그라드, 따슈껜트, 무르만스크 등 역을 시발점으로 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6대역을 도착점으로 하여 운행될 것이다. 도착역에는 손님들을 위하여 림시 호텔이 훌륭하게 준비될 것이다.

17만 여 권의 유람 안내서

축전 참가자들에게 모스크바를 자유로이 유람하도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쏘련 외국문 서적 출판사는 불란서어, 독일어, 서반아어, 서전어, 및 기타 여러 외국어로써 17만 5천권의 유람 안내서를 출판하게 된다. 그리하여 손님들은 이 유람 안내서 한 권만 가지면 안내자 없이도 모스크바 지하 철도, 쏘련 공업 및 농업 전람회, 트레찌야꼬브 미술 전람회와 그리고 모스크바의 여러 박물관과 공원들을 견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많은 비둘기의 사양

축전이 개막되는 그날 종전보다 훨씬 많은 비둘기—평화와 친선의 상징—를 레닌 경기장 (앞으로 여기서 축전이 거행된다) 상공에 날리기 위하여 쏘련의 여러 도시와 농촌의 청년 학생들은 이미 작년부터 비둘기 사양 애호자 구락부를 조직하고 비둘기를 보다 많이 기르고 있다. 모스크바의 비둘기 사양 애호자만 해도 축전이 개막되는 그날 3만 마리의 흰 비둘기를 날릴 것이다. 끼예브의 청년들도 3천 마리 이상 그리고 쏘련의 기타 지방의 축전 참가자들도 수 많은 비둘기를 가져 올 것이다.

1만 2천 여 개소의 매점

모스크바로 오는 축전 참가자들로 하여금 기념품들과 각종 물품들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쏘련 무역성은 축전이 진행되는 기간 모스크바의 큰 거리마다 기념품을 판매하는 1만 2천 여 개의 로천 매점, 손'구루마 및 간이 매점을 두게 된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일부 주요 백화점들도 축전 참가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접었다 차려 놓았다 할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든 매점을 가지게 된다.

× ×



로력의 열매

증산과 절약의 통

요즘 우리 조립 브리가다 민청원들은 직장 안에 《증산과 절약》의 통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매 바이스에서 쓸어던지든 포금 줄칼밥을 죄다 모아서 이 통 안에 넣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 바이트 둘레에 줄칼밥이 담겨질 양철통을 각각 설비하고 있으며 선반공들은 포금재를 쌓을 때에 포금이 튀어나지 않도록 바이트에 낡은 천을 감음으로써 하루에 0,3키로의 절삭밥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월초 닷 새 동안 우리들이 모은 줄칼밥과 절삭밥은 22키로에 달하고 있는바 1년후에는 1,000 여 키로로 될 것이다. 이것을 다시 녹여서 리용한다면 600키로의 포금재와 240개의 줄칼을 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라흥 철도 공장 청년 직장
통신원 최 룡수

1930년대 항일 유격 투쟁 실기



첫 정찰

글 • 김 일 신

정찰 임무를 받고 농민으로 가장한 유격 대원 한 영남 동무가 얼뚜장(二道崗)부락 가까이에 당도한 것은 한낮이 좀 기운 때였다.

그는 본래 유격 근거지에서 공청 사업을 했다. 그는 그때도 정찰 임무를 받고 백색 구역(적들의 통치 구역을 말함)에서 며칠씩 적들의 동향을 조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적의 집결 구역에 잠입하여 적정과 인민들의 동정을 살피는 이런 정찰은 이번이 처음이였다.

정찰은 전투의 승부를 좌우함을 그는 명심하고 있다. 사실 한 동무는 긴장과 흥분이 한데 얽켜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

이윽고 숲속에서 나온 그는 장백현성으로 통하는 큰 길에 들어 섰다. 바로 그때였다. 좌측 언덕 아래서 총을 둘러멘 적병 한놈이 나타났다.

그놈은 언덕을 타더니 《어—이》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한테로 빨리 오라고 한다. 순간 한 동무는 높이 뛰는 가슴을 안은채 망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왜놈은 다시 고함을 치며 손질을 한다. 그 무엇을 결심한 듯 한 동무는 마음을 다잡고 그놈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놈은 왜놈의 장교였다. 알고 보니 노루 한마리를 잡아 끌고 오다가 힘이 드니까 마침 한 동무더러 도와 달라는 수작 같았다. 한 동무는 노루를 질머지고 왜놈 장교의 뒤를 따랐다. 그는 누구의 조사도 받지 않고 무사히 부락에 들 수가 있었다.

부락에는 일제 관동군을 비롯해서 괴뢰 위만군 놈들과 심지어는 산림 경찰대 놈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십리길을 무거운 노루를 메고 오자니 삐근하기는 했으나 요행 장교놈의 덕으로 그는 어느 국수 집에서 하루 밤을 묵게 되였다. 그런데 그는 국수집 부엌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왜병들의 각반이였다. 주인 마누라는 부엌 한쪽에 산'더미 같이 각반을 쌓아 놓고는 가마에 그것을 넣어 말리우고 있었다.

《로벌대 놈들이 오면 우리는 국수 장사도 못한다우》

40이 넘어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는 련속 아궁에 장작을 지피며 두덜거리는 것이였다.

그의 말에 외하면 로벌대놈들이 오기만 하면 인민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쩍하면 공산군을 잡으려 간다고 큰 소리를 치며 떠나기는 잘하지만 며칠 되지도 않아 돌아 올때 보면 어데서 녹아났는지 반수 이상이나 팔 다리를 둘러메고 온다는 것이다. 이런 때면 으레 놈들은 죽은 놈들을 운반하노라고 닥치는 대로 문짝을 떼여 가고 재이불들을 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중에도 제일 어이없는 일이 각반 말리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놈들은 한놈이 각반을 세켤레 이상씩이나 갈고 다니는데 로벌 나갔다 돌아오면 젖은 각반을 강제로 부락 인민들에게 노놔주어 말리우게 한다. 그중에서도 국수집엔 큰 가마가 있다하여 많은 각반을 가져 오는데 한번 가져 오면 적어도 이틀은 걸려야 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두 어제 가져 온거라우. 언제 불에 말리우겠수. 이렇게 가마에 닦아 낼 수 밖게 없다우! 참 별 꼴을 다 겪구 산답니다》

한 동무는 어느듯 이 아주머니와 허물없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다.

《아주머니! 그래두 사람이란 살기 마련이라우. 나도 나이 스물셋에 아직 장가도 못 들었지만…… 한번 음달이 지면 반드시 양지가 있는 법이 랍니다.》

바로 이 때 부엌문이 열리며 경찰 한 놈이 들어섰다. 놈은 속히 말리운 각반을 병영으로 가져 가라고 호통을 치고는 나가 버린다.

《에구! 어두웠는데… 령감은 어델 나가 다니는지 원…》

하며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말리운 각반을 가마에서 꺼낸다.

《할 일도 없는데 제가 함께 운반해 드리지요》

한 동무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한 동무는 아주머니와 함께 왜놈 병영으로 향했다. 찬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골목을 빠져나온 한 동무는 병영으로 가져가는 각반을 지고 인,많은 부락 사람들을 보았다. 병영 앞에서였다. 한 동무는 륙순이 넘은 할아버지 한분이 왜놈의 구두'발에 채이는 것을 보았다. 한 동무는 이를 갈며 두 주먹을 쥐였다.

《저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라우. 어젠 우리 집 령감도 한바탕 겪었다우! 각반이 채 마르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그는 꾹 참고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 왜놈병영으로 들어 갔다. 군데 군데 천막이 널려 있었다. 아마 병실이 부족한 모양이다. 병영 구석에선 군수 기재를 정비하며 마차와 말길마에 탄약 상자를 싣는게 분명 출동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한 동무는 국수집 아주머니와 함께 천막을 하나 하나 돌아 다니며 놈들의 일거 일동을 자세히 살펴 보았다. 다시 넘어지 각반을 질머지고 산림 경찰대 병영으로 가서 약 한시간 동안이나 각반을 돌려 주고막 병

—

칠문을 나서려는 때였다.

《이놈아! 이것이 왜 이 모양이야? 당장 새것을 가져 오란 말이야》

산림 경찰대 소대장놈은 한쪽끝이 거멓게 타서 구멍이 뚫어진 각반을 한 동무의 얼굴에 던지며 호통을 쳤다.

이를 본 국수집 아주머니는

《아이구!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수다.》

하며 한 동무의 곁에서 허리를 굽히며 용서를 빌었다.

《우리는 오늘 떠나지 않으니 이거와 같은걸 가져와야 된단 말이야.》

산림 경찰대 소대장놈은 다시 한번 한 동무의 다리를 구두'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산림 경찰대 놈들은 오늘 떠나지 않는 구나…)

이날 밤 그는 아주머니에게서 적들이 들어 있는 병영과 천막과 또는 학교나 주구놈들의 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다.

다음날 아침 20도구 골안 막장을 에돌아 그는 밀영지로 향하였다. 그는 열뚜강 부락의 지형과 적 병영 배치 략도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였다.

—관동군 500명 림강 방면으로 이동

—정안군 150명 리 명수 방향으로 이동, 위만군 헌병 10명 동행

—산림 경찰대 200명 계속 주둔

—치안대 (오구시마 대장 인솔) 100명 장백현성으로 이동

—경찰 유격대 100명 새로 도착 등등

그는 다음날 아침 부대로 돌아 왔다. 그는 흥분을 참아가며 김 일성 원수에게 적정을 보고했다. 그는 이때 이동된 적 부대들이 아군 제 2사를 공격하기 위하여 출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사실 제 2사 부대들이 열뚜강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정찰 떠나기 전에 알고는 있었으나 적들이 제 2사를 포위 공격하기 위하여 밤'중에 이동된 내막은 알지도 못했고 정찰 과정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였다.

한 동무의 정찰 결과는 유격대의 작전 승리를 위하여 좋은 재료로 되였다.

한 동무의 정찰로 제 2사를 공격하기 위하여 출동된 적의 병력을 알수 있었으며 적의 군사 기지이며 제 2사를 포위 공격 할려는 적의 배후로 되는 열뚜강을 진공함으로써 량면으로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작전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김 일성 원수께서는 150명의 대원을 친히 인솔하고 열뚜강을 향해 전투 행군을 개시하였다.

행군 대렬의 선두에는 한 동무가 있었다. 그는 열뚜강 부락의 빛이 보이는 고지에 이르러 다시 한번 부락내의 적 배치 정형과 부락까지의 거리 및 지형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유격대는 잠시 휴식하면서 작전을 수립하였다.

제 1 부대는 포대의 적을 공격하여 시내 진공 부대에 대한 적의 포대 사격을 못하게 할 것이며,

제 2 부대는 동쪽 토성의 철조망을 끊고 부락에 진공하여 각기 적 병영에 접근한 후 사격 신호에 의하여 일시에 적을 공격 할 것이며,

제 3 부대는 적의 통신망을 끊고 적의 군수 물자를 로획하여 운반하며 인민들을 장악하고 악질 주구와 밀정놈들을 처단하되 인민들의 생명 재산을 절대로 보호하기로 했다.

한 동무는 시내 진공 부대의 안내

를 담당했다. 또한 그는 적의 집단 부락 계획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친일 특무놈인 리 만섭과 진 중산의 집에 불을 질을 것과 경찰서에 구금된 인민들을 구출할 임무를 맡았다.

밤 열시—.

한 동무는 시내 진공 부대의 선두에 서서 성과적으로 적 병영에 까지 당도했다. 그리고는 곧 그는 기관총반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이윽고 사격 신호가 밤 하늘에 터졌다. 일제 공격이 시작되였다. 사격 소리는 온 부락과 하늘과 산야를 뒤 흔들었다. 전투는 유격대 용사들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만세! 만세!

학교 앞으로 모여온 부락민들은 손에 홰'불을 들고 만세를 소리 높이 웨치며 유격대의 승리를 축하하였다.

한 동무는 경찰서에 감금된 인민들을 구출하였다. 구출된 인민들과 함께 그도 학교 앞으로 갔다.

이때 군중 속에서

《여보 젊은이, 이게 웬 일이요 나요… 나…》

하며 어떤 아주머니가 달려 나오며 한 동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 아주머니!》

《글쎄 내눈이 틀림없지. 여보 령감 이 젊은이가 바로 김 일성 장군님과 같이 계시는 분인 줄이야》

그는 령감의 두 눈에 맑은 이슬이 반짝이고 있음을 보았다.

특무와 친일 주구놈들의 집은 시뻘건 불'길 속에서 재로 되였다. 인민들은 자원하여 로획한 물자를 운반하겠다고 나섰다.

다음날 새벽 네시 유격 대원들은 부락을 떠나 기지로 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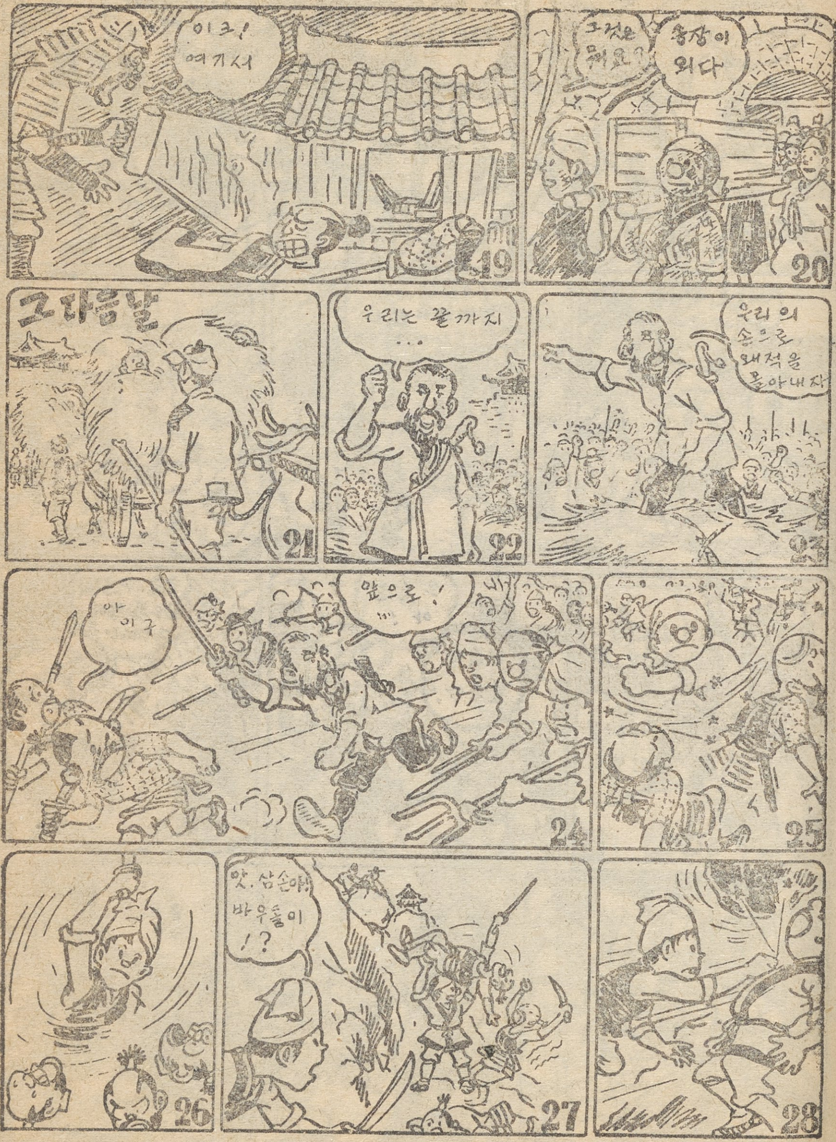
만세를 웨치며 유격대를 환송하는 인민들 속에서 국수집 아주머니와 령감은 포로들을 데리고 행군하는 유격 부대를 동구 밖까지 나와서 전송하였다.

유격대 용사들의 이 열뚜강 전투의 승리로써 제 2사를 포위 추격하려는 적들의 소위 토벌 작전은 좌절되고 말았다.




련속만화
삼손이와 삼복이
제3회
림 영환 그림
삼손이
삼복이
전호에서 계속
나라를 구하자면 온 백성의 힘이 하나로 뭉쳐야 하오。…
넷… 우리도 왠수들과 싸우게 해 주십시요
젊은이! 나를 배노면 안되오!
대장나리 어.돈줄까 담배좀…
이왕이면 불도 주시요
이 자식 불조심 햇!
넷… 조심합죠!


선생님 빨리!
선생님 우리는 그동안 백성들을 2천명이나 모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넓혀야지요
우리에게는 화약이 없소 빨리 이것을 우리의 손에 넣어야
자 여러분 안녕히!
오 삼손아!
삼복아 꽃분아!
응응, 그 화약 창고를 알아. 그래서…
저놈이 창고 대장이야
잠간만
허, 보초놈이 어델 갔을까?



이크! 여기서
그것은 뭐요?
송장이 외다
그다음날
우리는 끝까지 ...
우리의 손으로 왜적을 몰아내자
아이구
앞으로!
앗, 삼손아! 바우들이 !?



악!
됐구나! 삼복아!
이자식 들은 생명이야
도망 못간다
앗! 삼손이가?!
우리 부모 형제들의 복수다!
퇴각이다 퇴각!
뭣 남문이?
대장님 남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피땀을 짜먹는 원수들을 끝까지 무찌릅시다!
끝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하여

대안 전기 공장 로동자들은 금년도 계획을 1개월 단축하여 완수하며 8천만원의 증산과 6천만원의 절약을 보장할 것을 새 해에 맹세하였다.

이 방대한 과업을 실행하자면 300명의 로력과 11대의 공작 기대가 더 요구된다.

그러나 이 공장 로동자들은 국가로부터 추가 로력과 기대를 더 받지 않고 자기들의 맹세를 실천하기로 하였다.

이것의 성과적 실천은 설비의 합리적 리용과 그의 기술적 개선, 선진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의 적용에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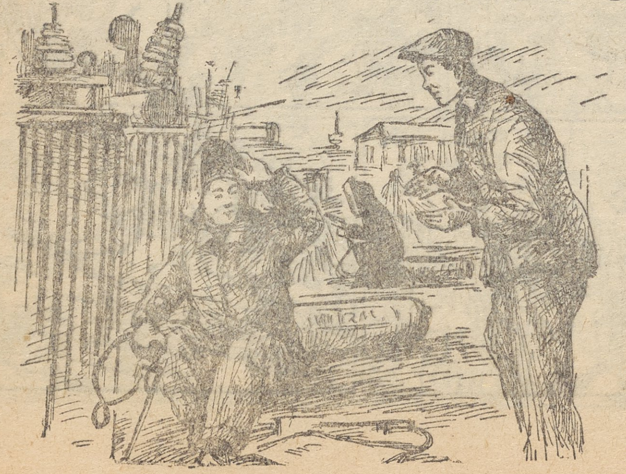
작년도 이 공장의 선반, 볼반, 쎄빠와 같은 기계들의 기대당 성능은 40～45%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른 설비들의 능력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선진 기술은 작업 전반에 걸쳐 도입 적용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중요한 것은 선진적인 절삭 공구를 생산에 도입하지 않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이곳 청년들은 우선 종래의 하이스 바이트를 선진적인 정형 곡선 바이트와 뽀베지트(강력 절삭 합금 바이트)로 교체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물론 이것은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작년부터 하이스 바이트를 정형 곡선 바이트로 바꾸자는 선반공 김 영환, 리 보성 동무들의 제기는 적지 않은 청년들의 반대를 받아 왔다. 결과 선진적 절삭 공구의 하나인 정형 곡선 바이트는 금년초까지도 생산에 광범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다.

낡은 기술을 고집하는 이러한 태도는 선진 기술 도입에 큰 지장으로 되였다.

김 영환, 리 보성 동무들의 창발적 발기를 적극 지지해 나선 것은 공장 민청이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설비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낡은 기술에 대한 보수성을 극복하는 투쟁과 결부시키였다. 즉 공장 민청은 초급 단체의 지도하에 선진 공구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기술 일'군들과의 협의회, 그리고 선진 공구에 대한 기술 강연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일부 청년들은 설비를 늘굴것만 생각하면서 선진 기술을 받아 들이여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높일데 대하여는 계속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여기로부터 공장 민청은 실지 률질적 성과로써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김 영환 민청호에서 정형 곡선 바이트에 대한 시험을 조직하였다.

이날 시험에서 김 영환 동무는 로동 생산 능률을 210%로 높이였다. 이것은 하이스 바이트에 비하면 근 배나 더 높은 생산 성과였다.

이때야 비로소 청년들은 정형 곡선 바이트가 우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선반 청년 직장 10대의 민청호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정형 곡선 바이트를 쓰고 있는데 선반기 기대당 절삭 능률은 평균 120%, 최고 160%까지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생산 성과에 기초하여 이곳 선반 청년 직장 청년들은 2·4분기까지에는 60대의 기대들에서 전반적으로 정형 곡선 바이트를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기대의 공급 없이도 금년도 계획을 능히 초과 완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낡은 수공업적 생산 공정들을 제품 생산의 실정에 알맞게 흐름식으로 개조하는 동시에 선진 작업 방법을 광범히 적용하기 위한 투쟁에 출선 나섰다. 벌써 청년들 속에서는 적지않는 창의 고안자들이 나오고 있다.

청년 직장인 변압기 직장 청년들은 조립공 리 창백 동무의 창발적 발기에 의하여 이미부터 시도해 오든 흐름식 작업 방법을 도입 적용하는데 성공하였다. 즉 그들은 종전에는 변압기 한개를 조립하는데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하던 작업 방법을 버리고 지금은 횡고아를 조립하는 동무는 전'적으로 횡고아만 조립하는 방법으로 조립 작업을 전문화하였다. 결과 조립공들로 하여금 작업에 정통할 수 있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12명의 로력을 절약하고도 종전에 비하여 로동 생산 능률은 매일 평균 55%로 더 높이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질도 현저히 높아졌다.

종전에는 제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 데로부터 적지 않은 부화 전류를 냈다. 그러나 흐름식 작업 방법을 도입한 후부터는 변압기 부화 전류를 근절하고 변압기 하나에서 평균 1키로왓트의 전력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변압기의 성능을 3%나 더 높이고 있다.

이것은 매일 6천키로왓트의 출력을 가진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전력을 절약하는 것으로 된다.

변압기 직장 청년들의 모범을 따라 다른 직장 청년들 속에서도 작업의 합리화 및 귀중한 창의 고안들이 나오고 있다.

제관 직장 용접공 홍 석히 동무는 젊은 기수 림 춘삼 동무의 기술적 지도밑에 련속 용접 방법을 창안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평균 180%까지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기구 직장 리 병구 동무가 33 유입 차단기를 창의 고안한 것을 비롯하여 70 여 건의 창의 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고 있다.

본사 기자 리 용철



양력과 음력

지금 세계에서 쓰고 있는 력서에는 양력과 음력의 두가지가 있다.

양력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을 근거로 하여 만든 것이며 음력은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을 근거로 하여 만든 것인데 이전에는 주로 음력을 많이 써 왔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세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양력을 쓰고 있다. 이것은 음력보다 양력이 년대를 계산하거나 또는 절기의 변화를 표시하는데 편리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양력과 음력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보통 말할때 1년은 365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바퀴 도는데는 365일하고도 5시간 49분을 더 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구가 4년전의 제자리에 돌아 오자면 23시간 16분 즉 약 하루를 더 돌아가야 한다.

이런데로 부터 4년에 한번씩 윤년을 두어 366일로 한다. 그래서 윤년일 경우에는 2월은 28일로 하지 않고 29일로 한다.

그러나 음력은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만월로부터 다음 만월까지의 기간을 한달로 하는바 음력의 한달은 29일하고 반나절이다.

음력의 평년은 354일이고 큰 달은 30일이고 적은 달은 29일로 되여 있다. 그러므로 음력에서 쓰는 1년은 350일이므로 양력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음력에서는 3년만에 한달씩이나 되는 윤달을 넣어 절기에 대충 맞춘다. 원래 음력은 달의 운동에 의거하여 만든 것이므로 지구의 운동에 의한 계절의 변화와는 관련성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농촌들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절기를 알기 위해서는 음력이 정확하다고 하면서 양력은 쓰지 않는 습성들이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년 24절기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궤도우에서 일정한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결정되는 것 만큼 절기는 양력에 의하여 되여 있다.

실례로 하지는 6월 21일이나 22일이고 동지 역시 12월 21일이 아니면 22일이다. 그리고 한식이라든지 기타 절기들도 해마다 하루를 전후하여 들지 않으면 같은 날에 든다.

그러나 음력은 그렇지 못하다. 작년도에 음력으로 동지는 11월 21일이였고 하지는 5월 13일이였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하지가 5월 25일이고 동지는 11월 2일이다. 이것만으로도 음력이 양력에 비하여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다'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음력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은 달의 영향 밑에 조수가 들어 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이다.

막씸 고리끼를 배우자



위대한 인간 정신의 기사 막씸 고리끼는 1868년에 볼가 강변의 옛도시인 니쥐니 노브고로드시에서 탄생하였다. 그는 벌써 어렸을 때에 부모를 잃고 파산당한 외조부의 집에서 살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가 자서전적 3부작인 《유년 시대》, 《사람들 속에서》, 《나의 대학》등에 쓴 것 처럼 견디여 내기 어려운 괴로운 생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아니되였다. 그는 여덟살 때 구두집 사환'군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사회적 로동에로의 그의 첫 걸음이였다. 그후 그는 제도공의 집에 견습생으로 취직하였으나 고생이 너무나도 막심하여 그는 그곳에서 도주하여 기선에서 일하였다. 기선에서의 나날은 그에게 커다란 희망과 보람찬 생활을 안겨 주었다. 그것은 기선에서의 일이 흥겨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 기선 료리사의 견습생 생활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스승을 만난 데서였다.

그의 첫 스승은 료리사인 퇴역 근위 하사 미하일 안또노비츠 쓰므리였다. 그는 좀 거처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책을 많이 읽어 박식한 사람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책이나 출판물에 대하여 취미를 가지기는 커녕 오히려 피하기가 일수였든 고리끼에게 책을 읽을 것을 아주 강경히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고리끼는 이때부터 책을 읽는데 취미를 가지기 시작하여 손에 닿는 대로 모주리 읽었다. 그가 읽은 많은 책들은 그가 아직까지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던 생활을 그에게 보여 주었다. 그가 책속에서 본 정직하고 신념이 강하며 정의감에 불타는 인간들은 한결같이 정당한 것의 승리와 아름다운 위업을 위하여서라면 당장에라도 목숨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인간들이였다. 이러한 인간들은 그에게 부르조아—지주적 짜리 로씨아의 전제 제도에 대하여 반항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해야할 투사로 장성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물론 막씸 고리끼는 철도 감시인, 제과공, 제빵공 등 빈민굴에서 최하층의 생활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도리여 이러한 생활은 그가 통치자들의 학대를 반대하는 열렬한

혁명적 가수로 등장하는 길을 도와 주었을 뿐이였다.

위대한 언어 예술가인 막씸 고리끼는 1892년 찌플리쓰의 지방 신문 《깝가즈》에 처녀 작인 단편 《마까르 취드라》를 발표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창작 생활에 들어 섰다. 이때는 벌써 새로운 력사적 시대인 프로레타리아 혁명 운동의 첫 불'길이 타오른 때였다. 그리하여 자기의 두뇌와 심장을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건설에 바쳤다. 그는 1899년부터 심장의 고동을 멈출때까지 세계적 명작들인 수 많은 소설들과 희곡, 정론, 평론 등 각양한 쟌르의 문학 작품을 창작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위대한 위업에로 열렬히 불타게 하여 준다. 그 가운데서도 사회주의 사실주의 문학의 최초의 고전적 모범을 보인 중편 《어머니》 (1906년)는 오늘 의연히 거대한 생활력을 간직하고 있다.

공장과 기계에 자기의 일생과 피를 빨리운 로동자들은 자본의 무거운 쇠사슬을 그냥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흙속에 파묻히고 만다. 로동자들의 감정은 거칠대로 거칠어져 주막집에서 한잔 술에 취하여서는 야수와 같이 울부짖으며 세상을 저주하는자 하면 까닭없이 서로 피투성의 싸움을 한다. 가난과 굶주림의 진정한 사회 경제적 원인을 모르는 이들은 이렇게 살다 죽어 갔다. 《어머니》의 주인공인 빠벨 블라쏘브의 아버지도 이렇게 죽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도탄속에서 빠져 나갈 출구는 없는가? 막씸 고리끼는 바로 빠벨 블라쏘브와 그의 전우들, 빠벨의 어머니인 닐로브나의 형상을 통하여 이 혁명적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주었다. 로동자 부락에는 사회주의 사상을 로동자들 속에 침투시키는 혁명적 지하 크루쇼크가 조직된다. 빠벨과 그의 전우들은 짜리 전제 제도를 반대하는 영웅적 투쟁에 나선다. 그리하여 판가리 싸움은 버러지고 광범한 근로 대중은 사회주의 사상의 적극적인 전사로 장성한다. 바로 이러한 력량은 오직 승리를 쟁취하고야 만다는 사상을 위대한 프로레타리아 작가는 이 작품에서 보여 주었다.

이 밖에도 그에 의하여 창작된 수 많은 인간 성격의 군상은 다름아닌 전 세계 진보적인 인민들을 자본주의의 멍에에서 해방할려는 거대한 사상의 체현자로 등장하고 있다. 바로 이점, 이 정신 세계가 일제의 탄압 아래에서도 우리의 작가들과 무릇 수많은 청년들이 그를 사랑하며 따르게 하였으며 오늘의 우리 청년들이 그의 생활을 모범받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막씸 고리끼가 생존했을 때 쏘련의 수많은 삐오네르들과 공청원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의 청년들은 그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내여 위대한 인간의 생활에 대하여 물었으며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가 체험한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하며 오직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지식의 원천인 책을 사랑하시요… 다만 지식만이 구원의 힘입니다. 다만 지식만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강하고 성실하고 리성적인 인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의 로동을 존경하며 그의 끊임없는 위대한 로동이 낳은 아름다운 열매를 충심으로 볼 수 있는 인간으로 당신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만 지식뿐입니다.》

이 위대한 작가의 위대한 정신 세계를 배우자. 그리고 실천하자.

김 창 식



우리들 가운데는 둥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허지만 지금으로부터 350 여년 전엔 사정이 달랐다. 그때 구라파에서는 승려들이 정권을 잡고 카토리크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은 죽어서 천당에 가는데 있다》 라는 카토리크교의 설교는 하나의 법률처럼 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당》이 없다거나 둥근 지구가 어떤 천체의 힘의 작용으로 돌아 가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모조리 학대를 받았던것이다.

이런 암흑한 시대에 이 영화 주인공인 이태리의 진보적 학자 죠르다 브르노는 《하나님》이 없고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주장하여 나선다. 그러자 그는 승려들에게 《이단자》로 몰려 제네바로 가게 된다.

그러나 제네바에서도 그는 종합 대학에서 유물론을 강의하였다는 것으로 쫓겨 나가게 된다.

허지만 그는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오직 인류의 행복을 위한 진정한 과학을 사랑하는 그는 종교의 반동적 본질을 반대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칠 것을 결의한다. 그리하여 그는 영국과 불란서 등 각국을 찾아 다닌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의 행복이 죽어서 《천당》에 가는데 있다면 《천당》을 설교하는 승려들은 어째서 죽기를 싫어하는가고 날카롭게 풍자한다. 그리고 인간은 지식을 배우고 과학을 발전시켜 행복을 얻어야 하며 이 세상엔 《하나님》도 《천당》도 없다고 말한다.

바로 이처럼 진리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죠르다노의 사상은 불란서 황제와의 대면. 영국 옥쓰포드 대학에서의 리론전, 그리고 승려들을 반대하는 농민 봉기 등을 계기로 해서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한다.

과학과 예술의 옹호자로 알

펴져 있는 불란서 황제를 찾아 간 죠르다노는 황제에게 오직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만이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한다.

불란서 황제는 죠르다노의 론리에 감탄한다. 허지만 그는 종교도, 《하나님》도 거부하는 그런 사회가 오면 자기가 황제 노릇을 할 수 없으며 인민들을 계속 복종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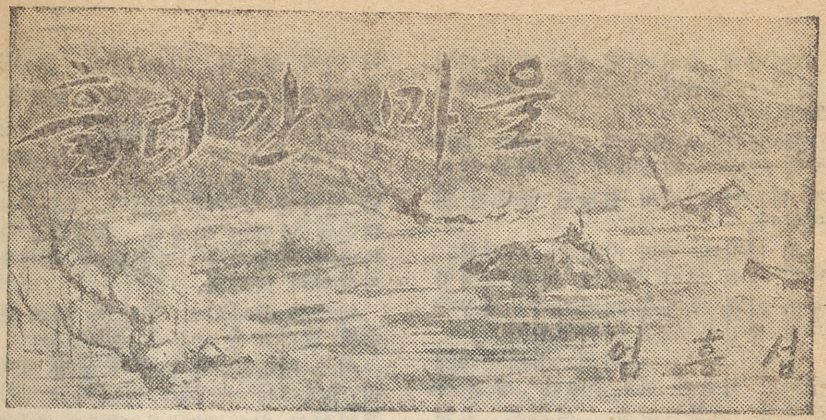
왜냐면 종교는 만능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짓말로써 인민들을 속이고 《살아서 고생하는 자는 죽어서 천당에 가느니라》고 설교하면서 인민들을 영원히 특권 계급의 노복으로 만들려는 하나의 도구였기 때문이였다.

죠르다노는 불란서에서 다시 추방된다.

허지만 그는 불란서 황제와의 대면에서 귀중한 대답을 얻게 되였다. 그것은 진정한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행복은 오직 착취와 억압의 낡은 사회 제도를 뒤집어 엎는 혁명의 길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쏘련 예술 영화 《불멸의 모닥불》에서 죠르다노의 운명은 종교 재판을 받은 후 화형을 당해 참혹하게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사상을 불태우지는 못했다. 오늘날 그의 사상은 승리하였으며 과학은 온 세계를 광휘롭게 밝혀 주고 있다.





《흘러간 마을》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근로 농민들을 착취하며 억압하는 악질 친일 지주 계급을 타도하기 위한 농민 봉기를 그린 단편이다.

이 작품이 씌여지던 시기(1925—1930년)는 농민들이 자연 생장적으로 혹은 목적 의식적으로 경향 각지에서 무수히 일어나 일제 주구와 친일 지주를 반대해 싸웠다.

나는 이《흘러간 마을》에서 농민들의 앙양된 혁명 의욕을 형상화하려 했고, 악질 친일 지주와 자기의 호화 방탕한 향락 생활을 위하여 농민들을 억압 착취하는 면모를 폭로하였고 나아가 농민들을 자체 해방을 위한 무장 봉기에까지 불러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씌여지지는 못했다. (저 자)

(1)

산! 산! 산!

밑에 우뚝 솟은 별장, 별장 앞에 달잠긴 호수, 호수를 막은 높은 방축, 방축 밑에 조금 떨어져 구물거리는 게딱지 같은 조그마한 마을, 밭과 논 사이를 뚫어 달'빛 싣고 굽이굽이 흐르는 맑은 시내, 시꺼먼 거인 같이 큰 솔밭이 꽉 들어찬 나지막한 산을 하얗게 테두리한 신작로.

무섭게도 고요한 이 마을의 어렴풋한 정서는 꿈에 보는 활동 사진 같았다.

일곱 별이 깜박깜박 졸고 있다. 벌레 소리 멀리서 그쳤다. 고요한 순간은 계속되였다.

해소가 일어나기 전의 엄숙한 바다처럼 죽은 듯한 이 마을엔 별안간에 큰 사건이 생겼다.

우뚝 솟은 별장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사나운 불'길이 일어났다.

불'길은 호수의 물을 새빨간 피처럼 이글이글 끓이며 산덩이라도 태워 삼킬것처럼 무서운 혀'바닥을 널름거리였다.

《불이야! 불이야!》

별장직이 령감이 마을로 뛰여 다니며 목이 찢어지도록 고함을 쳐도 사람 하나 뛰여 나오지 않았다.

워낙 밤이 깊었으니까 잠이 곤히 들어서 그럴듯도 하거니와 홍염 속에 총소리 같은 기와'장 튀는소리를 듣고서도 한 사람도 내다보지 않았다면 이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적 방화나 아닌가 하여 세상 사람에게 의심 받을 일이 아닐가?

사나운 불'길은 조금도 용서 없었다. 30평 기지의 아름드리 기둥과 덩실한 이층 란간은 두 시간 동안도 못되여 참담하게도 불 속에 거꾸러져 재가 되였다.

(2)

불 속에 타버린 별장은 백만 장자요, 도 평의원인 최 병식의 향락장이였다.

남선에서도 색향인 진주에다 제3 주택을 두고 거기에서 10리쯤 떨어진 데, 이 마을에 별장을 두게된 것이였다.

최 병식의 향락 사업은 기생첩, 학생 첩을 얻어 주택을 넷씩 다섯씩 두는 것과 별장을 여기저기 세우는 그것 뿐만은 물론 아니였었다.

꽃과, 새와, 나비의 봄에는 제1 주택인 서울과 제2 주택인 평양 사이에서 거들거리고, 여름은 전혀 석왕사나 원산에서 피서를 하고, 가을이면 금강산의 폭포와 단풍을 맛보다가 차차 찬 바람이 불면 훨씬 남쪽인 따뜻한 온천을 찾아 오는게 근래 그의 년중 행사의 중요 차례인 것을 세상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그는 이제 50이 둘을 넘은 인생의 만년에 이르렀으면서도 전용의를 두세씩 두어 불로초, 불사약을 애써 구하였다.

갖은 보약과 갖은 선약의 위대한 힘은 그로 하여금 3—40의 장년으로 보이게 하였으며 계집을 하루라도 떠나서는 견딜 수 없는 색마를 만들고도 남았다.

그의 가는 곳마다, 그의 앉은 곳마다, 계집은 따랐다. 향락과 환락은 따라 다녔다.

세계 일주는 못했어도 일본을 거쳐 미국까지는 갔다 왔고, 만주를 거나 북경, 상해 방면도 휘둘러 왔으니 이만하면 넉넉한 대장부요, 훌륭한 명사라고 그는 스스로 만족하여 왔다.

그의 50주년 생일 축하연이 서울서 버려졌을 때, 그는 지방 명기로 진주의 유색이와 평양의 춘심이를 지휘주어 초대하였다.

유색이와 춘심이는 그의 안격 속에 살짝 들었다. 그는 먼저 춘심이를, 다음에 유색이를 첩으로 맞았다. 유색이를 세째첩으로 맞이한지 석달이 지난 작년 봄 어느날 밤, 최와 유색이를 실은 자동차가 달밝은 강남 언덕을 향하여 천천히 드라이브하는데 별안간 괴상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자동차를 위협하고 최에게 가해하려 하였다.

이상한 사나이는 복면을 하고 한 손에 날카로운 단도를 들었었다.

최는 현금을 탈탈 털어 벌벌 떨며 내 주었으나 괴상한 사나이는 지전뭉텅이로 최의 얼굴을 때리며 《나는 강도가 아니다. 너 같은 좀벌레를 처단하려는 사람이다. 너 하나의 향락 때문에 수백 수천의 농민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굶주린다는 걸 아느냐?》하고 단도를 번뜩이면서 최의 목덜미를 찌르려 했다.

이때 공교롭게도 자동차 한대가 날아들었다. 괴상한 사나이는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단도를 든채 번개같이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유색이는 이 괴상한 사나이가 누구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확실히 괴상한 사나이의 목소리는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그것은 틀림없는 형준의 목소리라고 직감했다. 형준이라는 사나이는 원래 진주의 어느 마을 빈농의 아들이였다. 소학을 졸업하고 농업 학교에 입학이 되였었으나 동맹 휴학의 주동 인물로 몰리여 징역을 치고 나온 후 다시 자기 마을의 악질 지주 강모의 살해범으로 혐의를 받고 감옥 살이를 하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나온지 얼마 안되는 사나이다.

유색이는 어렸을 때 형준이와 이웃에서 살았든 관계로 그가 감옥에서 나온 뒤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를 했고 또 어떤 기회에 우연히 그와 동행해서 자기들이 살든 마을에 간일도 있었으므로 그가 복면을

했지마는 귀에 익은 목소리만은 숨길 수 없었든 것이다.

그러나 유색이는 그것이 형준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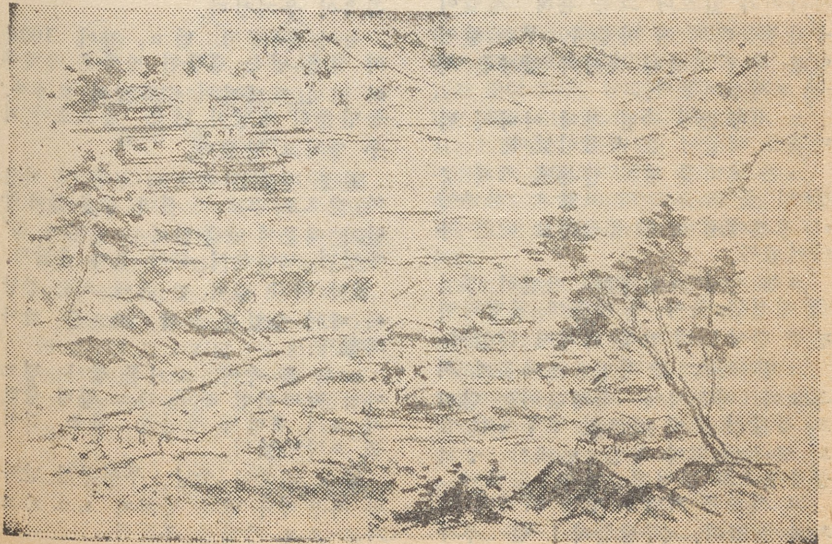
최는 밤마다 복면한 그 괴상한 사나이가 칼을 들고 자기를 살해하려고 대드는 꿈을 꾸었고 유색이는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안되여 최와 인연을 끊고 그의 집에서 뛰여 나왔다.

최의 정신적 고통은 컸다. 그는 자기의 살해 미수범으로 10 여 명의 혐의자가 체포되고 옥에 갇히였으나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고 여전히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긴장 상태와 불안 상태가 계속되여 밤에도 잠을 못 이루게 되였다.

그는 결국 신경 쇠약에 빠졌다. 그의 전용 의사는 산수 맑은 곳에가 정양할 것을 지시했다.

최는 적당한 곳을 가려 또 별장 하나를 짓고 정양하면서 평양 기생 춘심이를 데려다 향락할 것을 계획했다.

그리하여 그는 진주와의 사이에



자동차 교통이 편리한 것과, 자기의 산림과 전답이 있는 것과, 멀리 지리산이 바라다 보이는 한가하고 의젓한 경치와, 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제법 맑고 넓은 시내가 있는 것이 그의 비위에 맞게 되여 이 마을에다 별장 건축을 착수하였던 것이다.

(3)

날마다 수백명의 로동자와 농민들은 별장터를 중심으로 모여 들어서 일들을 하였다.

최의 계획은 컸다. 별장 앞에는 반드시 호수가 있어야 하고, 호수 가운데는 섬을 만들고, 섬 우에다가는 팔각 초당을 날아 갈듯이 짓고, 그 전후 좌우로는 향나무, 단풍 나무, 다박솔들을 심어놓고 괴상 야릇한 돌멩이들을 진렬해야 한다는 그의 동양화적 취미는 수백명의 로동자, 농민을 시켜 일변 방축을 쌓고 흐르는 시내'물을 끊어 방축 안에 잡아 넣기로 하였다.

그들은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장과 방축이건만 애써 나무

를 깎고 허를 다지고 땅을 파고 뚝을 쌓아 올렸다.

최가 별장을 짓고 호수를 만드는데 대하여 이 근방 사람들은 별반 찬성하는 빛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두드러진 반대나 불평이 있는 것같지도 않았다.

그는 복 많은 사람이니까…백만장자이니까… 의례히 그러려니…하는 미적지근한 불쾌감이 가슴에 가볍게 물'결쳤을 뿐이였다.

그러나 여기에다 방축을 쌓는데 대하여 은근히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방축 밑에 자기 마을이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였다.

만일 홍수가 나서 방축이 터지는 날이면 30여 호의 이 마을의 생명이 위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마을의 젊은 사나이들은 처음부터 극력 반대해 나섰다.

《누구든지 방축 쌓는데 품 팔면 다리를 분질른다…》

이런 선언을 하고 팔을 걷고 나선 사나이가 있으니 그는 본래 성질이 우락부락하고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의례히 자기가 앞장을 서는 고서방이였다.

고 서방은 4—5년 전에 어디서 이 마을로 떠들어 온 사람이였다.

그는 머리를 깎고 일본에 가서 공장 일'군 노릇도 해 보았고 하관이나 부산에서 지게 품팔이도 해본 사나이였다.

그는 작년 초봄부터 단연히 무엇을 결심한 듯이 이 마을에 처박히여 진주 밖에는더 멀리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작년 초여름에 최부호의 자동차에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손에 체포된 열두사람 중의 하나가 되여 석달 만에야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된 일도 있었다.

고 서방은 거리로 뛰여 다니며 힘차게 웨쳤다. 《사람들아! 한 부자의 별장을 짓기 위하여 우리 200 여명의 생명이 위태한 짓들을 하고 말텐가!》

그의 웨치는 힘은 기어이 품팔이터에서 이 마을 사람들을 빼앗아 오고야 말았다.

그러나 최 부호는 경찰 서장과 군수에게 부탁하여 10리나 떨어진 다른 마을 사람들과 읍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다가 더 한층 굉장히 일을 시작하였다.

고 서방은 자기 마을의 긴박한 사활 문제를 곰곰 생각든 끝에 여러 친구를 모아 군청으로 뭉치여 갔다.

그래서 군수 앞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들어 방축을 못 쌓게 하여 달라는 간절한 진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은 담박 실패하고 말았다. 고 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였다.

《암 그렇지! 돈 있는 놈이 제일이지. 별수가 무엇 있나! 흥 보자 끝을 보자!》

(4)

아주 여름이 되였다. 산과 들에 록음이 우거졌다.

높이 두 길이 넘고, 길이 100발이 훨씬 넘는 굉장한 방축은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의 수백명의 로동자, 농민들의 백날이 넘는 힘으로야 겨우 쌓이고 말았다.

별장 건축은 아직도 끝을 못 마쳤다. 옆으로 흐르는 시내'물을 끓어 들였기 때문에 방축 안에는 날마다 물'줄기가 모여들어 물이 불어 올랐다.

물이 차차 깊어 간 뒤에 최는 강남에 매여 두었든 그의 뽀트를 갖다 띄웠다.

그는 물 속에 고기를 잡아 넣고 아침 저녁이면 배를 타고 빙빙 돌면서 고기 새끼와 장난을 하는 것이 큰 오락이였다.

별장 건축이 끝날 무렵부터 날마다 자동차가 별장 앞까지 오고 가고 가고 오고 야단을 부렸다.

고 서방을 비롯하여 이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아침 저녁을 맞았다.

래일을 바라고 오늘을 사는 이 마을 사람들의 실낱 같은 《삶》의 애착은 날마다 날마다 산으로 들로 지게를 지워 내쫓았다.

뜨거운 해'볕에 그들의 얼굴과 살은 몹시도 탔다.

그들은 살려고, 살려고 몹시 헤매여도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를 면치 못하며 보리밥 된장 덩이나마 흐뭇하게 배를 채워 보지 못한다.

노을이 사라지고 별들이 번뜩번뜩 날때라야 피곤에 시달린 다리를 끌고 오막살이를 찾아 든다.

극장, 활동 사진, 음악, 무도, 강연회, 운동회가 이 마을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에 있다.

자동차, 전차, 기차, 기선이며 라지오, 전신, 전화, 5색 전등의 아기자기한 현대 문명은 이 마을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 없는 다른 세상에만 있다.

담배 연기에 어린 침침한 등잔'불을 둘러 싸고 화투나 투전으로 놀음을 하는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거리였다.

그들에게는 달과, 솔과, 새와, 꽃을 그린 울긋불긋한 화투짝이 유일한 미술화다. 모여 앉아 장에 갔다 온 이야기, 나무 팔다 뺨 맞았다는 억울한 이야기, 세상살이 한탄이 유일한 강연회다. 상사 뒤여, 산타령, 아리랑이 가끔 흥을 돋구는 그들의 음악이다. 충렬전, 추월색, 춘향전이 그들에겐 밥과 같은 예술의 전부다.

강렬한 음향, 화려한 색채의 라열 직선과 곡선, 곡선과 직선의 표현과의 그림 같은 도회 정서가 이 마을의 상투쟁이 농민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딴 세상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새) (소) (식)

세계에서 제일 큰 실내 경기장

쏘련의 지나모 경기장엔 오래지 않아 지붕이 씌워질 것이다. 그러면 이 경기장은 11만5천명의 관람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실내 경기장으로 될 것이다.

지붕은 3개의 유리 지붕으로 되여 있는데 그 면적은 1만 평방메터이며 1개의 축구장의 면적보다도 2천 8백 평방메터가 넓다. 유리 지붕은 움직인다. 겨울에는 지붕을 닫아 놓고 실내 온도를 섭씨 14도 내외로 보존하며 일기가 따뜻할 때에는 지붕을 열어놓으며 소낙비가 내려도 그 지붕은 5분이내에 닫을 수 있게 되여 있다. 날씨가 무더운 날에는 통풍 시설로써 경기장 내를 서늘하게 할 수도 있다.

경기장 내의 축구장은 사시 사철 푸른 록지로 될 것이며 운동장 내에는 자전거 경기장도 설치될 것이다.

서쪽 관람석 부근에는 음악회 및 기타 연예를 위한 한개의 굉장한 무대가 설치될 것이다.

미국에도 두개의 이름난 실내 체육관이 있으나 그의 수용 능력은 모두 4만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더우기 그 체육관들에서 축구 경기는 할 수 없게 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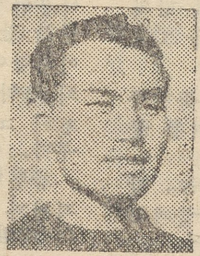


스포츠 명수

유용호동무



《과연 저 사람이 힘든 방어를 해 낼가?》하고 관중들이 의심하리 만치 유 용호 선수는 몸이 작다.



그러나 키가 작은 유 용호 선수가 방어하는 때면 아주 강한 상대방 공격수들도 노상 뽈을 빼앗기고 만다.

작년에 중국 북경에서 진행된 조, 중, 월 3개국 친선 축구 경기에서도 유 용호 선수는 공화국 축구팀 좌측 방어수로 참가하였다. 중국 축구 선수들의 공격은 몹시 맹렬하였다. 그러나 유 용호 선수의 날쌔고 장한 방어에는 어쩔수 없었다. 그들은 90분 동안의 경기에서 다만 세 번 슡을 했을 뿐이다.



유 용호 선수의 오늘의 영예에는 많은 노력이 깃들어 있다. 키가 작은 불리한 조건을 아는 그는 조약력과 기민성을 기르기에 힘썼다. 그는 인민군대에 복무하면서 체육 과목을 열심히 학습하였으며 체력을 단련하였다. 조선 인민군 체육 지도원 강습소생으로 입소한 후부터 그는 선진 체육 리론을 더욱더 깊이 체득하기에 애썼다.

유 용호 선수는 제 12차 국제 대학생 체육 축전과 제 5차 세계 청년 학생 평화 축전에도 공화국 대표선수(방어수)로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높은 체육 성과를 시위하였다.

김 윤태

편집 위원 김 학연(주필)
김 상민 김 수백 박 춘실
양 동섭 조 채현 현 영호

청년생활 제 3 호 1957년 3월 5일 인쇄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1957년 3월10일 발행

인쇄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20원) ㄱ—40384 50,000부



절약의 명수 김 석 철 동무

마지막으로 깎은 치차를 기본 견본에 대보는 김석철 동무 (평양 방직 기계 제작소 청년 직장 치절공)의 얼굴은 엄숙하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한개의 오작품도 안낼 것을 맹세한 그는 1월과 2월중 생산 계획을 오작품 없이 103%로 초과 실행하였다. 그는 오늘도 60개의 완성된 치차를 깎았다.

8016 ЧХОННЕН СЕНХВАЛ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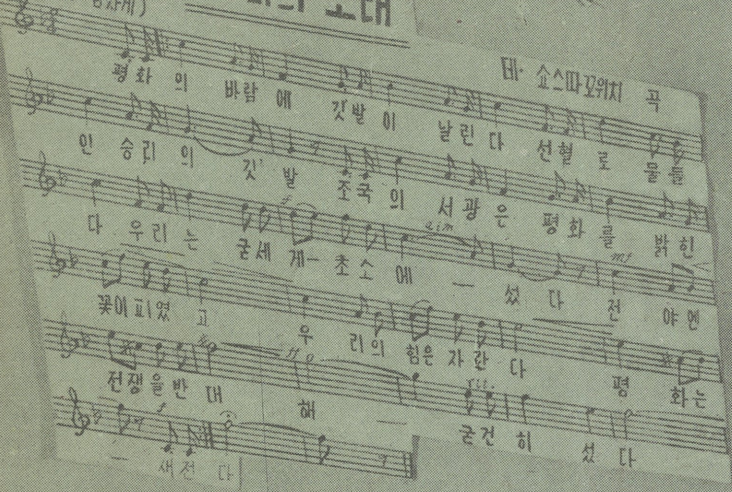
ПЗК 8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1 1.12 НВ016

예·돌마똡쓰끼 시
김 준도 역

평화의 노래

(빨리 힘차게)

드·쇼스따꼬위치 곡



2 새전쟁 방화자 잊지를 말어라
인민의 억세인 단결의 힘 은
온세계 평범한 인민과 더부러
우리는 평온히 미래를 살핀다

3 인류의 자유와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조국을 굳 게 지킨다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길에서
인민은 모두다 행 복 스럽다

